



The 10th

NEAR

제10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총회
General Assembly

October 21~24, 2014 |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환 영 사

전라남도지사 이낙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 제10차 총회가 개최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선,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몽골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NEAR 회원국 참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울러, 뜻 깊은 행사를 우리 전남에서 개최해주신 김재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전라남도의회 명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시아에는 세계 인구의 1/4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도 전 세계 총 생산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동북아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NEAR가 출범하여 경제 분야뿐 아니라 인재육성과 문화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를 함께 논의해 온 데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총회가 개최되어 기쁘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라남도가 가진 자원과 각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동북아 6개국 71개 단체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5천 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숨 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온화한 기후, 2,200여 개의 섬과 드넓은 갯벌, 그리고 넉넉한 인심은 전라남도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이곳 전라남도는 고난과 역경의 아픈 역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주변 국가들로부터 무수한 침략을 받아 크고 작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한 때도 있었습니다.

현대사의 정치적 변혁기에는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 전남도민은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가치 있는 일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NEAR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오늘 총회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전남 도민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남 도민들과 저는 NEAR 회원국들과 우의를 다지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교류와 제안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NEAR 회원국 참가자 여러분!

저는 동북아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잠재력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 역사를 주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동북아 주변 국가들이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호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 속한 여러 국가들 사이에는 갈등과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오래 전부터 잠복해 있는 갈등도 있고 새롭게 제기된 문제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는 지정학적으로 얽힌 이러한 갈등과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NEAR 회원국가들 사이에 이러한 갈등과 문제가 있을수록 회원국들이 자주 만나

고 대화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총회는 NEAR 회원국이 활발히 교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전라남도는 NEAR 회원국으로서,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국가와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해 국제화의 문을 더욱 넓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회가 동북아 여섯 국가들의 진정한 우의를 다지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남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고 귀국하신 후에도 많은 분들께 전남을 소개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0. 22

전라남도지사 이 낙 연

축 사

존경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연합 대표 여러분!

김재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지역 전남에서 **제10회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총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매우 축하하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 협력과 발전을 위해 먼길 마다않고 오신 회원단체 대표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총회가 개최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재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북아는 유럽과 북미에 이어 이미 세계 3대 경제축으로 부상했으며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인구비중이 높고, 풍부한 자원과 문화를 보유하고 있어 그 위상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NEAR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국가에 앞서 지역적으로, 또 문화와 경제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회원 자치단체간 지혜와 경험을 교류하고 협력해야만 동북아시아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커져야 국가의 경쟁력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남도는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의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원단체간 협력의 기초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동북아의 미래와 회원단체의 우정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북아지역 자치단체 대표자 여러분!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고, 함께 가는 길은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북아지역 자치단체는 **함께 19년의 꿈을 꾸며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함께 했던 꿈은 동북아 지역의 번영과 평화였으며 걸어왔던 길은 교류와 협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었던 공동번영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동북아지역 자치단체간의 오랜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모두가 고루 잘사는 지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10.22.

전라남도의회 의장 명 현 관

목 차

□ 총회개요	11
· 개요 / 일정 / 참석자 명단	
□ 연합 주요활동 보고	23
· 제 9 차 실무위원회 경과 보고	
· 사무국 주요활동 및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 회원 지방정부 대표발표	51
· 중국 허난성	
· 일본 효고현	
· 일본 시마네현	
· 몽골 아르항가이 아이막	
· 몽골 불강 아이막	
· 러시아 부랴티아 공화국	
· 러시아 사하 공화국	
□ 총회 의제 및 보고사항	75
· 신규 회원단체 가입신청(사무국)	
· 연합헌장 개정	
· 2016 년 총회 유치 신청	
□ 제안사항 (NEAR 사무국)	83
· NEAR 회비제 도입 제안	
· 분과위원회 효율적 운영방안 제안	
· NEAR 사무총장배 노래자랑대회	
□ 가입 후 소감발표	93
· 중국 지린성	
· 러시아 하카시야 공화국	
□ 참고자료	101
· 연합헌장 및 회원단체 현황	



총회개요

개요 / 일정 / 참석자 명단

제10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총회

<행사개요>

- 기 간 : 2014. 10. 21(화) ~ 10. 24(금) (3박 4일)
- 장 소 : 전라남도 영암군 현대호텔
- 주 제 : 새로운 동북아 공동협력시대 창조
- 주요내용
 - 총회
 - 연합주요활동보고(실무위원회/사무국/분과위원회)
 - 회원지방정부 대표발표
 - 의제발표, 토론 및 표결
 - <전남>선언문 의결, 발표 및 폐회
 - 부대행사
 - 순천만정원, 광양제철소, 목포 바다분수 등 현지시찰
- 회의 공식언어 :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 참석규모 : 6개국, 150여명
 - 회원 단체 : 5개국 100여명
 - ※ 중국 4개 단체 13명, 일본 4개 단체 11명, 한국 12개 단체 35명,
몽골 6개 단체 12명, 러시아 6개 단체 10명,
 - 신규회원 단체 및 옵저버 단체 : 2개 12명
 - NEAR 사무국 : 17명

〈행사일정〉

일 자		주 요 일 정	비 고
10.21 (화)	14:00~21:00	◦입국 및 등록	
	18:30~21:00	◦호텔휴식 및 자유시간	
	07:30~09:00	◦조식 및 휴식	호텔현대
	09:30~10:00	◦도지사 VIP 면담	
	10:00~10:45	◦개막식 - 개회 전라남도 홍보 동영상, 환영사(도지사), 축사 (사무총장,도의장), 기념촬영, 후속행사안내	
	10:45~11:00	Coffee Break	
	11:00~12:00	◦총회 - 개회, 참가자 소개 - 실무위원회 결과 보고(전라남도) -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활동보고	
	12:00~13:30	◦오찬 및 자유시간	
10.22 (수)	13:30~15:20	◦회원단체 대표발표 및 제안	호텔현대
		◦총회의제 발표, 토론 및 의결 - 신규 회원단체 가입 신청 (지린성, 하카시아 공화국) - 연합헌장 개정(사무국) - 2016 년 총회 유치 신청(이르쿠츠크주)	
		◦NEAR 사무국 제안사항	
		Coffee Break	
	15:20~16:00	◦ 선언문 토의 및 채택 - <전남선언> 선포	
16:00~17:00	휴 식		
	17:00~18:30	◦ 공식만찬(국제관계대사)	도립국악단공연
10.23 (목)	08:30~21:00	◦산업 및 현지시찰	순천만정원, 광양제철 등
10.24 (금)	전 일	◦해산	

<참석자 명단>

■ 중국 : 4 개 단체, 13 명

회원단체	No	직책	성명	영문이름
허난성	1	정저우시 부비서장	리지에)	Li Jie
	2	중무현문화산업단지 관리위원회주임	왕차오지에	Wang Chaojie
	3	외사관공실 아시아처부처장	통위페이	Tong Yufei
	4	외사관공실 부주임	마궈리	MaGuoli
	5	중무현 상무국 국장	단원저우	Duan Wenzhou
	6	뤄보건설투자공사 부총경리	리바오핑	Li Baofeng
후난성	7	외사관공실 한국어통역	저우위엔	Zhou Yuan
닝샤후이족 자치구	8	외사관공실주임	리니엔핑	Li Nianping
	9	닝샤후이족자치구 위원회 판공청 처장	푸셴차오	Fu Xianchao
	10	외사관공실아시아· 아프리카처장	장화이이	Zhang Huaiyi
	11	외사관공실간부	티엔원	Tian Yuan
산둥성	12	산둥성위원회 판공청부순시원	런차오룽	Ren Chaolong
	13	외사관공실 아시아처주임과원	한잉화	Han Yinghua

■ 일본 : 4 개 단체, 11 명

회원단체	No	직책	성명	영문이름
니이가타현	1	서울 사무소 소장	쓰루마키 마사루	TSURUMAKI MASARU
	2	서울 사무소 팀장	문성희	MOON SUNGHEE
도야마현	3	관광 지역진흥국 차장	카메이 아키노리	KAMEI AKINORI
	4	국제·일본해정책과 계장	타테베 치에	TATEBE CHIRO
	5	국제·일본해정책과 교류원	김주희	Kim Juhee
효고현	6	부지사	카나자와 카즈오	KANAZAWA Kazuo
	7	국제교류과 과장	모리야스 히데카즈	MORIYASU Hidekazu
	8	국제교류과 주사	이케가미 타카히사	IKEGAMI Takahisa
시마네현	9	환경생활부 차장	진자이 히데히로	JINZAI Hidehiro
	10	문화국제과 그룹리더	쓰모리 히토시	TSUMORI Hitoshi
	11	문화국제과 교류원	두춘홍	Du Chunhong

■ 대한민국 : 12 개 단체, 35 명

단체	No	직책	성명	영문
부산광역시	1	사무관	남정은	Nam Jung-eun
	2	주무관	임정은	Im Jeong-eun
	3	주무관	조유선	Cho Yoo-sun
대구광역시	4	국제교류담당	김광목	Kim Gwang-muk
	5	주무관	김보하	Kim Bo-ha
광주광역시	6	사무관	김훈	Kim Hoon
	7	주무관	강화경	Kang Hwa-kyeong
대전광역시	8	주무관	조현희	Cho Hyeon-hee
	9	주무관	박선희	Park Sun-hee
울산광역시	10	사무관	전신호	Jeon Sin-ho
	11	주무관	최유성	Choi You-sung
세종특별 자치시	12	사무관	김병호	Kim Byeong-ho
	13	주무관	김진화	Kim Jin-hwa
강원도	14	주무관	박정균	Park Jung-kyoon
충청북도	15	과장	성기소	Seong Ki-so
	16	사무관	권영주	Kwon Young-ju
	17	주무관	강찬식	Kang Chan-sik
	18	주무관	장두창	Jang Du-chang
충청남도	19	주무관	김현기	Kim Hyun-ki
전라남도	20	도지사	이낙연	Lee Nak-yon
	21	전남도의회의장	명현관	Myung Hyun-gwan
	22	국제관계대사	박동실	Park Dong-sil
	23	국장	배택휴	Bae Taek-hue
	24	과장	나정수	Na Jung-soo
	25	사무관	김홍사	Kim Hong-sa

	26	주무관	조자옥	Jo Ja-ok
	27	주무관	박순임	Park Soon-im
	28	주무관	이애란	LeeAe-ran
	29	주무관	김주혜	Kim Ju-hye
	30	과장	주순선	Ju Soon-sun
	31	사무관	박화현	Park Hwa-hyon
	32	주무관	문병환	Mun Byung-hwan
경상북도	33	주무관	이명자	Lee Myung-ja
제주특별 자치도	34	사무관	현미화	Hyun Mi-hwa
	35	주무관	임현정	Lim Hyun-jung

■ 몽골 : 6 개 단체, 12 명

회원단체	No	직책	성명	영문이름
아르항가이 아이막	1	지사	더우덩남 바트에르덴	Dovdonnyam Baterdene
	2	행정국 국장	빠승 르학와수릉	Baasan Lkhagvasuren
불강아이막	3	지사	다와자우 에르덴바트	Davaajav Erdenebat
	4	국제교류 담당자	치메드 바트토야	Chimed Battuya
우부르항가이 아이막	5	부지사	마날자우 몽흐바야르	Manaljav Munkhbayar
	6	개발정책과 과장	장치우 삼당직멧	Janchiv Samdanjigmed
투브아이막	7	기상관측소 정보서비스과장	어치르 어용체첵	Ochir Oyuntsetseg
	8	기상관측소 환경모니터링과장	상다그수릉 어트경수릉	Sandagsuren Otgonsuren
바야홍고르 아이막	9	세무과 세무과장	아디아 에르덴빌레그	Adiya Erdenebileg
	10	기상관측과 기상관측과장	치멧 어용치맥	Chimed Oyunchimeg
홉스굴 아이막	11	조달과 실무자	냐마 신바야르	Nyamaa Shinebayar
	12	전력발전소 전력발전소장	멍허 푸레우수릉	Monkhoo Purevsuren

■ 러시아 : 6 개 단체, 10 명

회원단체	No	직책	성명	영문이름
부랴티야 공화국	1	경제부 장관	뎀노바 타치야나	Dumnova Tatiana
사하공화국	2	부지사	그루쉬코 드미트리	Glushko Dmitriy
	3	대외관계부계장	프로토포포프 발레리	Protopopov Valeriy
투바공화국	4	대외관계청 청장	온다르 칠기치	Ondar Chylgychy
	5	대외관계청 수석 전문위원	페트로프 알렉산드르	Petrov Alexander
이르쿠츠크주	6	경제개발부 직원	임로자	Rim Roza
	7	경제개발부 직원	네토소프 안드레이	Netesov Andrei
마가단주	8	천연자원과 환경부 장관	미티킨 블라디미르	MitkinVladimir
사할린주	9	투자·대외관계 차관	한 드미트리	KhanDmitry
	10	투자·대외관계 고문	고로호프 유리	Gorokhov Yury

■ 신규가입단체 및 읍저버 단체 : 2 개 단체, 12 명

회원단체	No	직책	성명	영문이름
지린성	1	지린성위원회 비서장	팡리	Fang Li
	2	관광국장	자오샤오쥔	Zhao Xiaojun
	3	경제협력국부국장	주톈슈	Zhu Tianshu
	4	외사관공실부주임	왕즈웨이	Wang Zhiwei

	5	상무청 부청장	첸팡량	Qian Fangliang
	6	외사판공실 아시아처 처장	슈에윈	Xue Yun
	7	지린성위원회 판공청처장	뤄옌링	Lv Yanling
	8	경제협력국 부처장	런후이칭	Ren Huiqing
	9	외사판공실 아시아처한국어통역	루슈양	Lu Shuang
	10	외사판공실 아시아처 한국어 통역	양단	Yang Dan
전국시도지사	11	전문위원	유창대	Yoo Chang-dae
협의회	12	전문위원	박지원	Park Ji-won

■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 17 명

구분	No	직책	성명	영문성명
사무국	1	사무총장	김재효	Kim Jae Hyo
	2	사무처장	이종환	Lee Jong Hwan
	3	기획총무과장	박창호	Park Chang ho
	4	기획총무담당	김영남	Kim Yeung nam
	5	주무관	윤혁준	Yun Hyeok Jun
	6	영어전문위원	김경실	Kim Kyung Sil
	7	행정전문위원	김유진	Kim You jin
	8	국제협력과장	홍정우	Hong Jung Woo
	9	국제협력팀장	박성민	Park Sung Min
	10	중국 전문위원	이혜정	Lee Hye Jung
	11	일본 전문위원	이명은	Lee Myung Eun
	12	몽골 전문위원	르함 히식자르갈	Lkham Khishigjargal
	13	러시아 전문위원	최주화	Choi Ju Hwa
	14	해외단체 파견직원(중국)	치홍정	Qi Hongzheng
	15	해외단체 파견직원 (일본)	마쓰오 슈이치로	MATSUO Shuichiro
	16	해외단체 파견직원 (몽골)	바트소이르 온드라흐	Batsuuri Undrakh
	17	해외단체 파견직원 (러시아)	안나 라만	Anna Laman



연합 주요활동 보고

제9차 실무위원회 경과 보고
사무국 주요활동 및 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제9차 실무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전라남도 국제통상과장 나정수

존경하는 NEAR 회원단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0차 의장이신 전라남도 이낙연 도지사를 대신하여 제9차 실무위원회 회의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9차 실무위원회 회의는 2013년 9월10일부터 13일 까지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5개국 26 개 회원지방정부 및 사무국 대표 94명이 참석했습니다

제9차 실무위원회 회의는 개막식에 이어「**동북아 지역간 초국경적 협력·교류강화**」라는 기조연설이 있었으며, 2016년 NEAR 총회 유치신청, NEAR 신비전 연구보고, 분과위원회 주요활동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보고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몽골과 러시아로부터 2016년 총회유치 신청 건이 있었습니다.

신청지역은 몽골 우브르항가이아이막 1개 지역과 러시아 자바이칼변경주, 이르크 추크주 등 2개 지역 등 모두 3개 지역이며, 결정사항은 국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무국에서 러시아와 몽골의 각 1개 단체로 압축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몽골 개최가 어려울 경우 러시아 2개 지역을 상정하기로 한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둘째, NEAR 사무국의 헌장개정에 관한 안건을 논의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NEAR 헌장 제10조 제1항의 실무위원회 개최주기를 수정하기로 하였고, 헌장 제12조에 사무국은 경상북도에 장기 존치하되 불가피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 장소를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합헌장에 나오는 "자치단체"용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용어 변경은 한국어표기에 한함)

셋째, 경상북도에서 제안한 경제통상분과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의제를 논의 하였습니다

종전의 경제무역 중심에서 인문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경제통상분과위원회"를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로 변경하고 총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제안한 체육분과위원회 신설에 관한 의제를 논의 하였습니다.

회원 단체간 체육분야의 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체육분과위원회를 신설키로 하였으며 다만, 분과위원회 세분화 우려와 통합 의견도 있으므로 검토한 후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NEAR 사무국의 新비전 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NEAR 사무국의 연구보고 내용은 Governance의 재정립, 사무국 역량강화, 연합의 재무구조 재정비, 연합의 새로운 사업역량 개발이었으며 재무구조 재정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토론이 필요하므로 회원단체와 추가 협의 및 검토 후 차기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분과위원회 주요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본 토야마현의 환경분과위원회, 일본 시마네현의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일본 효고현의 방재분과위원회,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 변경협력분과위원회, 대한민국 경기도의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중국 산둥성의 해양·어업분과위원회, 러시아 마가단주의 광물자원개발·조정분과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곱째, 연합 주요활동사항으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의 2012년 제9차 총회 결과보고와 NEAR사무국의 주요 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중국 후베이성의 협력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의 공동번영 촉진을 위한 교류협력의 심화라는 주제로 대표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회원국은 적극 찬성하고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단체 여러분!

이처럼, 제9차 실무위원회는 회원 단체간 견고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소통과 이해를 통한 폭넓은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안사항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토론과 심의를 통해서 끈끈한 결속력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 NEAR 회원단체는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결의를 다지면서 상호교류를 통한 우의를 나누었습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회원 단체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제10차 총회 역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활동 보고

사무총장 김 재 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연합 사무총장 김재효입니다.

연합(NEAR)사무국은 지난 2005년 상설사무국화 됨으로써 체계화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2년에는 발전적으로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사무국을 장기적으로 운영케 합의되면서 지속성과 일관성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원단체의 지지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회원의 확대와 분과위원회의 신설 및 새로운 공동프로그램의 개발, 대외협력 채널의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10대 의장 기간인 2012-2014년까지의 사무국의 활동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원단체간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회원단체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위해 회원단체의 각종 국제행사와 분과 위원회 행사에 참석, 회원단체간 교류협력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리고 금년 5월 5개국 37단체 NEAR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질적인 인적네트워크인 실무자워크숍을 개최하여 연합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교환과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 삭제) 러시아 투바공화국, 몽골 투브아이막 등 회원단체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 알선 등의 지원요청에 대한 사무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증대 하였습니다.

2. 국제기구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여 연합의 국제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연합의 국제위상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AER(유럽지방정부연합회), R-20(기후변화행동연합), 러시아동방학연구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

였으며, 특히, 2014년 8월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에서 개최한 제6회 국제포럼에서 R20(기후변화행동연합)과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연합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실무자워크숍, 국제포럼 개최로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실시된 회원단체 실무자 워크숍은 금년으로 제9회째를 맞이 하였으며 지금까지 참여한 총 참가 인원은 66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국 37개 단체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국 사업성과 및 계획, 주요 사업보고, 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공동체의 모색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 회원단체의 지역발전우수사례 소개·홍보 및 사업 제안, 문화체험 등 통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 "하나 되는 동북아 지역,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러시아하바롭스크 주정부와 공동으로 하바롭스크시에서 제6회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회원단체 대표, 유관기관, R20 의장과 대표단, 한스제이델재단 한국대표 등 200명이 참가하여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발전적 결합, 기후변화와 동북아 지역의 대응 등 주요이슈에 대해 새로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합 산하에는 14개 분과위원회가 동북아지역 발전을 위해 산업별, 주제별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제9차 실무위원회에서는 회원단체간 스포츠 교류를 위해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체육분과위원회의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특히, 경상북도가 코디네이트 단체로 있는 경제통상분과위원회가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경제와 인문교류를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사무국에서는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해 공동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양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분과위원회를 연관성이 높은 분과위원회별로 그룹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프로그램개발을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5. 회원단체 파견직원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회원단체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9년째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무국에서는 파견직원에게 대한 근무여건 조성 및 활동지원을 위해 숙소와 체재비 지원, 한국어연수실 운영, 문화체험, 자체워크숍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언어권 별 전문위원들과 자료수집 정리, 자료발간 등의 대외업무를 공동수행 하면서 친목과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연차보고서 및 홍보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합 설립 이후 처음으로 2012년부터 매년 연합의 성과와 활동을 정리하여 되돌아 볼 수 있도록 "NEAR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원단체와 외부기관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2개 국어(한국어, 영어)로 발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6개 언어영역별(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영어)로 확대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연합의 비전과 주요활동 등을 담은 NEAR 홍보동영상을 제작·배부하여 연합의 홍보와 위상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의 뉴스지인 NEAR News를 격월간으로 발간하여 회원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에 배부하는 등 연합의 활동상황과 회원단체 주요 홍보사항을 신속히 실시간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 회원단체 주요관심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닝샤 총회에서 회원단체간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제안된 "청년인턴교류프로그램" (PioNEAR)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세이 공모를 통해 연합의 이해를 도모하고 차세대 동북아 및 세계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 에세이 공모"를 2회째 실시하는 등 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8. 연합의 장기비전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NEAR 창설 이후 회원단체가 71개로 확대되고 14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질적, 양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기비전 제시와 사무국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모색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

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미션재정립, Governance의 재정립,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확보 등 사무국의 역량 강화, 회비제 도입 등 연합의 재무구조 재정비, 연합의 새로운 사업역량 개발 등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9. 총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9차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및 2014년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장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회의자료 수합 및 제작, 회원단체 참가 홍보 등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하여 적극지원 하고 있으며 이번 전라남도 총회가 보다 좋은 제안과 발전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연합의 공동 발전을 위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해양어업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해양·어업분과위원회 중국 산둥성

2013년부터 해양어업분과위원회에서 전개한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3년 NEAR 실무자워크숍 참석

NEAR사무국의 초청으로 산둥성 해양어업청 소속 직원인 세지화(謝吉華), 쑤밍(孫明)을 한국 포항시로 파견하여 2013년 5월 28일~6월1일까지 개최하는 2013 NEAR 실무자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2013 실무자워크숍 본 회의는 NEAR사무국 주요업무, 회원단체 사례발표, 회원지방정부 행사홍보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원지방 행사홍보 시간에 산둥성 해양어업청 세지화 연구원은 "2013년 NEAR 해양어업분과위원회 홍보"를 주제로 발표 하였습니다. 중국 산둥성 해양어업분과위원회는 2013년 10월 하순 행사 개최 예정이며, NEAR 해양어업분과위원회라는 공간을 통해, NEAR 각 회원지방정부와 해양신흥산업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인 행사인 포럼은 "블루실리콘벨리"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창조, 협력, 발전"을 주제로 회원지방정부 간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 발전을 포럼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바이오산업, 해양설비산업, 도서(島嶼)관광산업, 해양교통 운수업, 해양방재 및 재해감소 시스템 구축, 해양어업의 신흥산업정책, 투자, 용자, 보험 등 분야가 포럼의 주요 테마임을 홍보 하였습니다.

2. 해양어업분과위원회 활동보고

"산둥블루이코노미" 정책의 격상과 동북아시아지역의 어업분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5일~7일 3일간 산둥성정부와 NEAR해양어업분과위원회가 주최하는 "해양 신흥산업 및 블루실리콘벨리 조성에 관한 포럼"을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은 "창조, 협력, 발전"을 주제로 국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동북아시아 해양어업 협력 발전의 새로운 미래를 연구 토론 하였습니다. 또한 산둥성이 가진 해양·어업 분야의 우수성과 신흥 해양산업의 발전, "산둥블루이코노미" 정책의 격상, 동북아지역 해양어업 분야의 교류협력 촉진 등의 내용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자오룬톈(趙潤田) 산둥성 부성장, 추이리펑(崔利峰) 중국 농업부어업국 부국장, 김재효 NEAR사무총장 등이 포럼 개막식에 참석하

여 연설하였습니다.

자오룬텐 부성장은 연설에서 동북아지역의 우수한 해양자원과 풍부한 어업자원을 언급하며, 해양어업경제는 강한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어 국가간 경제협력을 진행 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추이리핑 중국 농업부어업국 부국장은 연설 중 중국은 새로운 정세 아래, 해양어업발전방식의 전환을 중심으로 친환경방식을 고수하고, 양식과 조업이 결합된 형태의 생산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양어업자원과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할 것이며, 해양어업의 생산구조 조정을 통해 어업관련 기초시설과 장비 건설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어업 및 관리수준을 높이는 등 현대식 어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우수한 생태환경 조성, 생산 수준의 제고, 설비의 선진화, 양질의 상품 생산, 어민 소득증가에 심혈을 기울여 안정되고 화합적인 현대어업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재효 사무총장은 NEAR해양어업분과위원회가 다년간 전개해 온 각종 행사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NEAR사무국을 대표하여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축하하였습니다.

산둥성 해양어업청 왕소우신(王守信)청장은 포럼 개막식을 진행하고, "신흥 해양산업발전과 블루이코노미 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둥성은 해양생물 성장 및 양식 산업, 해양의약, 바이오 제품 산업, 해양첨단장비제조 산업, 해수 이용산업, 해양 신재생 에너지 산업, 심해자원 탐사·개발, 해양 하이테크 서비스 등 7개 분야의 신흥해양 산업기지 조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획설계, 산업연계, 과학기술, 환경보호, 대외협력 등 다섯 가지의 업무를 부각시켜, 과학적인 기획설계와 전폭적인 정책적 지지를 통해, 지역간 협력교류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신흥 해양산업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포럼에서는 해양경제의 금융적 지원, 해양 과학기술 연구 응용의 심화, 신흥 해양산업의 전략적 발전, 어촌·어민의 혁신, 근해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국제협력 확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18명의 국내외 전문가 및 학자들이 주제강연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 대만, 홍콩을 비롯하여 산둥성의 해양어업 관련부서 공무원, 책임자 등 300여명이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환경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환경분과위원회 일본 토야마현

1 환경분과위원회 개최

제11회 환경분과위원회를 2013년10월에 토야마현에서 개최 (한·중·일·러 4개국 8개 자치단체에서 참가)했고, 활동상황보고를 비롯한 개별 프로젝트 성과보고와 2014년 개별 프로젝트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로 일본 토야마현이 선출되었습니다.

2 개별 프로젝트 실시 상황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실시된 개별 프로젝트의 실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실시한 개별 프로젝트의 내용과 결과는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npec.or.jp/northeast_asia/)

(1) 제7회 국제 환경 포럼 '국경 없는 자연'(제안자: 러시아 연해변경주)

- a 시 기: 2013년 10월 10일~12일
- b 장 소: 블라디보스토크시
- c 참가자: NEAR환경분과위원회 참가자치단체를 포함한 3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가
- d 내 용: '국경을 넘은 지역환경 관리'를 테마로 총회 및 다양한 분야의 토의 세션을 실시하여 과학자 및 전문가의 실용적인 제안사항을 포함한 포럼의 개요를 채택

(2) 황사를 대상으로 한 광역 모니터링체제 구축(제안자 : 일본 토야마현)

- a 시 기: 2013년4월~2014년3월
- b 내 용: 2009년~2012년 조사결과보고와 참가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3)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체험 프로그램 (제안자 : 일본 토야마현)

- a 시 기: 2013년 8월 21일~22일
- b 장 소: 한국 강원도
- c 참가자: 4개국 8개 단체(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의 중·고등학생 62명
- d 내 용: 각 참가자치단체 대표의 활동발표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동영상 제작,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선언 2013' 발표 등을 실시

(4) 동해(일본해)·서해(황해)연안의 해변 표착물 조사 (제안자 : 일본 토야마현)

- a 시 기: 2013년 6월~12월
- b 장 소: 동북아시아지역 해안
- c 참가단체: 3개국(일본, 한국, 러시아) 18개 단체(총 1,898명)
- d 내 용: 해변 표착물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바다환경을 지키자'는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주민과 어린이들이 해변

포착물을 회수하고 분류하여 종류별로 개수 및 중량을 조사

3 향후 활동계획

2014년에는 각자 제안했던 개별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2015년에는 제 12 회 환경
분과위원회를 일본 토야마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야마현 제조업 종합견본시¹ 2015

호쿠리쿠(北陸)신칸센 개통을 계기로 토야마의 뛰어난 제조업 기술과 제품을 일본국내외로 홍보하는 것과 동시에 방문객에게 그 우수성을 알리고 토야마현내 기업의 판로개척과 제조업 인재 확보를 꾀하기 위해 내년 4월에 '토야마현 제조업 종합견본시 2015'를 개최한다.

< 개최개요 >

(1) 명칭 : 토야마현 제조업 종합견본시2015

(2) 테마 : 토야마로 연결되는 새로운 세계

(3) 기간 : 2015년 4 월23일(목)~25일(토)

(4) 장소 : 토야마 산업전시관(테크노홀) · 토야마시 체육문화센터

(5) 취지 : 공작 · 산업기기, 전자 · 전기, IT, 플라스틱, 알루미늄, 섬유, 의약품, 화학 등 일본 국내외 제조업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여 경제교류촉진을 꾀하는 것과 동시에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조업 기술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6) 주최 : 토야마현 제조업 종합견본시2015실행위원회
(토야마현을 비롯한 현내 경제단체들로 구성)

(7) 관련행사

- 기조강연 : 대기업 경영자를 초빙할 예정
- 세미나 : 해외 비즈니스 환경 등에 대해서
- 업체 프레젠테이션 : 전시회에 물품을 출품한 업체 중심의 제품 설명회
- 기업상담회 : 국내외 바이어 초청 사전 상담회
- 기업연구모임 :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매력에 대해 소개하는 모임
- 제조업 교실 :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실

¹ 견본시: 견본을 전시하여 매매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최되는 시장 (출처: 두산백과)



방재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2014년10월22일 (수)

효고현 부지사
카나자와 카즈오 (金澤和夫)

Hyogo Prefectural Government



1. 한신· 이와지(阪神· 淡路) 대지진



한신고속도로 고베(神戸)선



지진 규모

【일시】 1995년1월17일 5시46분
【진원지】 이와지(淡路)섬 북부. 깊이16km
【규모】 M7.3 관측사상 첫 진도 7

피해 규모

【피해】
사망자 6,402명
직접 피해금액 약10조엔 (약1000억 달러)
전파가옥 104,004동 (182,751세대)
피난자수 316,678명 (1995.1.23)

파편으로 덮인 거리 (고베시 나가타구)



효고현의 최근 수해

시기	원인	사상자·실종자	주택피해
2014년8월	태풍11호, 폭우	2명	66동(전파16, 반파50)
2009년8월	태풍9호	22명	1,109동(전파166, 반파943)
2004년10월	태풍23호	26명	7,925동(전파783, 반파7,142)



올해 8월 폭우 피해



2004년 10월 태풍23호 피해

- 2002년에 제1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방재분과위원회 개최
- 12년 동안 총 335명을 수용함

회차	시기	국가	자치단체	인원
제1회	2002년7월	4개국	11 자치단체	21명
제2회	2004년2월	5개국	11 자치단체	21명
제3회	2005년2월	4개국	9 자치단체	19명
제4회	2006년2월	4개국	12 자치단체	24명
제5회	2007년2월	4개국	14 자치단체	30명
제6회	2008년3월	4개국	17 자치단체	31명
제7회	2009년3월	4개국	17 자치단체	37명
제8회	2010년3월	3개국	11 자치단체	21명
제9회	2011년3월	4개국	17 자치단체	41명
제10회	2012년3월	4개국	17 자치단체	31명
제11회	2013년3월	4개국	16 자치단체	29명
제12회	2014년3월	4개국	16 자치단체	30명
합계(누계)	—	—	168 자치단체	335명

4 . 제12회 방재분과위원회

JICA간사이(関西) 워크숍



참가자

4개국, 16단체, 30명

닝샤후이족 자치구, 산둥성, 충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우브르항가이 아이막, 고비알타이 아이막, 셀렝그 아이막, 도르노고비 아이막, 사할린주, 사하 공화국, NEAR사무국

주요 일정

3월11일(화)

- ①인간과 방재미래 센터 시찰
- ②강연 「동일본대지진에서의 지원 등 효고의 방재」
- ③국제방재기관과의 의견교환
- ④JICA간사이 워크숍 「방재인재육성활동」
- ⑤환영교류회

3월12일(수)

시찰 (광역방재센터, 고베시 위기관리 센터 등)

광역방재센터



5 . 차기회의 개최 계획

(1)시기:2015년 3월 9일(월)~12일(목)

(2)테마: 경험과 교훈 계승~한신·이와지 대지진 20주년을 맞아~

(3)장소: 효고현 고베시 등

지진피해 경험과 교훈을 전하는 「인간과 방재미래센터」



- 유엔방재세계회의는 국제방재전략에 대해 논하는 유엔주최의 회의
- 제3회 회의가 2015년3월14일~18일 센다이(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에서 개최
- 센다이 회의에서는 2005년 제2회 회의(효고현 개최)에서 채택된 효고행동강령(HFA)을 이을 새로운 국제 방재 강령을 책정할 예정
 - HFA의 특징은 국가·지방이 제휴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방재능력 향상을 목표하는 것
 - 이를 위해서는 평소 대비가 반드시 필요
 - 효고현은 평소 대처하고 있는 방재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회원자치단체간의 국제적 연결고리를 강화시켜, 향후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방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第3回国連防災世界会議

開催期間：2015年3月14日(土)～18日(水)

감사합니다.



효고현 마스코트

「하바탄(はばタン)」

「2014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 in시마네」에 대해서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일본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국제과 쓰모리 히토시(津森 仁)

【프로그램 전체 개요】

- 2014년8월1일부터 8월6일까지 시마네현에서 국제교류프로그램 '2014 동북아시아 교류의 날개in시마네'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청년들이 시마네현에 모여서 6일간 의견교환을 비롯한 일본문화체험, 홈스테이 등 국경을 넘어선 상호이해와 우호관계를 쌓고,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시마네현과 우호교류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 러시아에서 총 20명, 그리고 주최측인 시마네현 진행을 담당할 대학생 7명을 포함한 총 27명의 청년들이 참가했습니다.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국제협력과 홍정우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 각국의 청년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청년들로부터 격려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음 일본을 방문하는 청년도 있었으나, 국경을 초월한 공동생활과 2박3일의 홈스테이를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낸 듯 합니다.
- 유카타(浴衣, 일본전통의상)를 입고 여름 축제에도 가보고, 불꽃놀이도 구경하고, 다도 및 일본 요리도 체험하고, 관광도 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이들을 맞이한 분들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메인 주제 '공생하기'】

- 교류사업의 핵심인 의견교환시간에는 '공생하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문제 및 복지문제 등 의견대립이 크게 없는 만국공통의 과제를 주제로 선정했었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외교문제 중에서 동북아시아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발전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사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경우에 따라 감정이 격해지거나 논의가 결렬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진행을 맡은 일본 측 청년들은 사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지에 대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청년들을 맞이했습니다.

- 의견교환 시간이 있기 전날 사전에 공부하고자 일본에 거주중인 한국·중국·러시아 분들에게 '공생하기'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면서 느낀 점, 특히 자국과 일본간의 대립되는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묻고 이에 대한 소중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상대방의 이야기는 끝까지 듣는다'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전제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토'와 관련된 화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자 긴박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각 그룹에서 의견교환 후 나온 결론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전날 일본 내 거주하는 참가자들의 경험담과 의견교환을 통해 느낀 점은 각 나라의 입장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다르다는 점과 언론보도도 자국 입장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타국과 관련된 보도는 나쁜 내용의 보도가 더 인상에 남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의의】

- 참석한 청년 중에는 타국 청년과 논의한 것은 처음이라 자국에 대해서, 타국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게 된 사람도 있었고, 난해한 과제와 복잡한 감정도 있었으나, 동북아시아지역 주민이 '공생' 하기 위해서는 직접 마주 앉아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프로그램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주제가 너무 어려웠다, 좀 부담이 덜한 과제가 좋겠다' 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견 대립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동시에 주최측인 우리들도 그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청소년 교류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동북아 생명의료산업 교류협력 방안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 대한민국 충청북도

존경하는 NEAR(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생명의료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류의 염원인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시켜 줄 생명의료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써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입니다.
충청북도는 생명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발전을 위해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 유기농, IT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선점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료산업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동북아 협력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충청북도의 제안으로 2012년 생명의료산업 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 지난 9월, 제1회 생명의료 산업 분과위원
회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5개국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회원단체의 발표가 있었으며,
동북아 생명의료산업 교류협력 방안 등이 주요안건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특히, 온울금(Curcuma wenyujin)을 활용한 항염제 후보개발, OMC-2010을 이용한
기관지 천식치료제 연구 및 유효물질 개발, 줄기세포 치료제 및 재생의학에 필요
한 세포생산을 위한 무중력 세포배양기의 개량 및 개발 등 생명의료 산업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사례는 국내외에서 참가한 회원단체 대표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을 얻었습니다.

또한, 생명의료산업 분과위원회를 주관한 충청북도에서는 생명의료 산업 분과위
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분과위원회 참여대상을 확대
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대학간, 기업간, 기업지원 기관간까지 참여하도록 제
안하였으며, 분과위원회별로 정보공유와 홍보체계를 갖춰관심도 제고와 참여율을
높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더불어, 충남에서는 분과위원회를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과 각 국의 인허가
제도가 차이가 있어 동일한 인허가 제도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참가회원국 대다수가 공감하였습니다.

몽골, 러시아 회원단체에서는 이번 분과위원회를 통해 충북의 뛰어난 바이오산업의 기술수준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천연원료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등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하였습니다.

특히, 러시아 연해변경주에서는 한국에서 생산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품질이 우수하여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해양관련 과학자를 초청하여 자료 공유와 협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첫 회의에도 불구하고 참여 회원단체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 등 그 열기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남대, k-뷰티갤러리,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를 직접 체험하고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가회원단체의 생명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동안 충북이 이루어 온 바이오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 분과위원회에서는 더욱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지향하는 생명의료산업 분과위원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방안

농업분과위원회 대한민국 전라남도

존경하는 NEAR(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

1995년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NEAR가 어느덧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동북아시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토지 황폐화와 사막화 그리고 빈번한 황사 등 기후변화 문제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식량정책에 대한 각국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라남도의 제안으로 2012년도에 농업분과 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지난 해에 제1회 농업분과위원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4개국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 곡물 수급불안에 대해 연구한 대한민국의「저탄소 한국형 무경운농업」사례는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응한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개발을 수행할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몽골은 자국 내 고비صح베르와 우부르항가이의 농경지가 저림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기술교류와 투자를 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전라남도「친환경 농업단지」와 「보성차밭」의 농업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견학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제2회 분과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도는 지난 해 행사를 치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들의 더욱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2회 분과위원회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분과위원회에서는 제1회 때 제안되고 토의된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개발 추진방안과 식량 수급

불안을 해소 할 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생산·가공·유통관련 정보 교류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상재해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를 줄이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북아 국가간 농업구조를 상호 보완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간 친환경농업 기술 교류를 활성화시켜 농업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발달 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장을 마련하는 NEAR 농업분과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해는 처음 개최하여 다소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개최할 제2회 농업분과 위원회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좀 더 알찬 행사가 될 것을 약속 드리며,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활동보고

대한민국 경상북도

회원단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NEAR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상북도는 경제통상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로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회 경제통상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통상촉진세미나, 수출상담, 특산품 및 우수상품 전시 등의 행사를 하였고, 매년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원단체들간의 경제통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기존 경제통상분과위원회를 경제·인문분과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2013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동북아지역 경제와 인문교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경제·인문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 5개국 67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최근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과 관련한 지자체별 우수사례발표와 질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최광식 전문화관광부 장관이 '실�크로드와 한류로드' 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고,

찰옥수수영농조합 법인, 야생초 김치 마을기업 등 경북도내 마을기업 과 협동조합관련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대전광역시의 사회적 기업 성공사례, 경기도 협동조합육성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참석한 회원단체에서는 중국 닝샤후이족 자치구에서'농민협동조합 발전방향', 후베이성에서' 후베이성 푸싱그룹의 성공사례',

일본 효고현의'커뮤니티 비즈니스와 효고현의 사례', 러시아 알타이변경주에서'지역의 농공업 복합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사례', 사하공화국의 '야쿠크 전통마을의 삶의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발전방안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성공사례들을 토대로 열린 토론을 벌인 결과 마을기업운영의 어려운 점과 주민들의 협력 문제 등 다양한 마을기업의 발전방안들을 도출 한바 있습니다

다.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문화융성을 선도하는 해양 실�크로드 프로젝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새마을 세계화 등의 사업을 통해 인문과 경제의 융합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며, 2015년에 개최할 제11회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도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마가단주 광물자원개발·조정 분과위원회

미티킨 블라디미르, 마가단주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마가단주는 광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역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천연자원은 지역의 개발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마가단주에서는 광산업이 발달했고 현재 폴류스 졸로토(Polyus Gold), 폴리메탈(Polymetal), 사이프루스 아마크스(Cyprus Amax), 킨로스(Kinross), 오보카 골드(Ovoca Gold) 등과 같은 지역의 대기업과 해외업체들이 광물자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단주에서는 예로부터 금, 은, 석탄 등의 광산업이 발달하였으며 광물자원의 개발 잠재력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 주에서는 광산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마가단주의 천연자원 생산 외에도 우리 마가단주의 미래산업이 될 철, 비철금속, 탄화수소 공급 원료, 시멘트 원료, 석고 등의 채굴은 에너지자원을 다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마가단주는 천연자원의 잠재력과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마가단주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기존의 마가단주 특별경제구역 지정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법령을 개정하였고, 특별경제구역 투자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하여 러시아연방의 국제협조약정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경제구역정책의 메커니즘에 따라 마가단주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과 건설, 생산, 사회안정 보장정책 등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및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별경제구역에 진출한 법인·개인기업 투자자들은 러시아연방의 법령에 따라 주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마가단주의 75%이상 고정자산을 소유할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가단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 18일 마가단시에서 <제1회 국제마가단투자박람회>가 마가단주정부, 마가단시, 마가단기업진흥재단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투자박람회의 주요 러시아 측 참가자는 사하공화국, 부랴티야공화국,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러시아연방 극동지역개발부 대표, 극동과 바이칼지역

개발기금, 브네쉬네에코놈 은행(Vnesheconombank), 비영리 단체인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청>이 참석하였고, 해외 측 참가자는 라트비아공화국 대표단, 중국 훈춘시 비즈니스 대표단, 주 모스크바 중국기업연합 대표, 중국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 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가단주는 NEAR 광물자원개발·조정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단체입니다. 2014년 7월 19일 <제3회 NEAR 광물자원개발·조정 분과위원회>를 마가단시에서 NEAR사무국, 마가단주정부 관계자, 마가단주 광산업체 대표, 러시아 다른 지역의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NEAR회원단체인 동북아 지역국가내의 광산업체들의 참가를 독려하여 천연자원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한편, 마가단주에서는 중국투자기업인 통화명방공업유한공사(Tonghua Mingbang Industrial & Trading)사의 참여로 광산업 분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남서광업회사>는 올스키(Olsky) 지역에서 안티몬, 은925, 백악암, 아젠틱 금·은 산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광산회사인 유즈나야(Yuzhnaya)사는 야고드닌스키(Yagodninsky) 지역에 위치한 동남부의 부르한스크 광석산지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기업 통화명방공업유한공사의 자회사인 광업홀딩스 루스키트(RusKit)사는 북에벤키(Severo-Evensky) 지역 케갈리(Kegali)강의 금·은 광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초, 광산회사 텐허(Tianhe)사는 마가단주 스레드네칸스키 (Srednekansky) 지역의 지질연구, 아연, 납, 은, 구리, 철, 카드뮴, 게르마늄 등을 탐사 및 채굴권을 받았고, 2012년 10월, 하신스키(Khasynsky) 지역의 금·은광석의 탐사 및 평가 감정권을 받았습니다. 마가단주와 사하공화국 지역의 두 곳에 걸쳐있는 야노-콜리마(Yano-Kolyma) 금산지 프로젝트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마가단주의 석탄광산 개발 현황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가단주의 옴수크찬스키 지역(Omsukchansky)의 동부광산회사그룹의 계열사 - 러시아 폐쇄형 주식회사 <동북석탄회사>는 옴수크찬시(Omsukchan)의 마을 근처 석탄매장지에 4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와 오호츠크해의 해안 쪽 석탄광산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천채굴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석탄 매장량은 1억 톤에 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지질조사에 10억 루블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 석탄광산 건설 및 개발이 연간 총 300만 톤 이상

- 다른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옴수크찬스키(Omsukchansky) 지역의 페스트라야 드레스바 (Pestraya-Dresva)만의 수출용 석탄 터미널 설계 및 건설
- 갈리미(Galimy)군에서 페스트라야 드레스바 (Pestraya-Dresva)만까지 130km의 도로 복구사업 실시

여기에 투자되는 프로젝트 비용이 120억 루블에 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장하고 있는 시장(한·중·일)으로 실질적으로 수출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현실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 투자자 등 해외파트너와의 협력도 가능합니다.

오늘날 동북아는 문화, 교육, 경제, 환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NEAR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번 만남이 마가단주의 천연자원개발과 더불어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경험 확대는 우리주의 전략목표입니다. 저는 이번 총회가 천연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우리지역으로 광산업체 지도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고, 천연자원의 공동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지방정부의 발전에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누구와도 만나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 지방정부 대표발표

중국 허난성

일본 효고현

일본 시마네현

몽골 아르항가이 아이막

몽골 볼강 아이막

러시아 부랴티아 공화국

러시아 사하 공화국

지방정부대표발표

허난성 중무현(中牟縣) 소개

내외 귀빈,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름다운 풍요의 고장 전라남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자연풍경과 찬란한 문화,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을 맞아주는 이 곳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0차 총회에 참가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소중한 발표 기회를 주신 회의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제가 허난성 중무에 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허난성은 중국의 중부지역에 위치한 황하문명의 발원지여서 이 곳 전라남도처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오천 년의 황하문명 역사 중, 삼천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국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20여 개의 왕조가 이곳에 도읍을 세우거나 천도해 왔습니다. 중국의 팔대고도(八大古都)에 속하는 뤼양(洛陽), 카이펑(開封), 안양(安陽), 정저우(鄭州)가 허난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허난성은 또한 중국의 성씨의 발원지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씨 100개 중 78개의 성씨가 허난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무는 허난성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걸출한 인물이 많이 나고 물자가 풍부한 풍요의 땅입니다. 삼국지에서 유명한 전투인 “관도대전(官渡之戰)”의 격전지이자, 도가 사상가 열자(列子), 고대음악의 시조인 스옌(師延), 서진(西晉) 시기 문학가 판안(潘安), 명나라 충신이자 민족 영웅인 사가법(史可法), 유교 사상가 란진주(冉觀祖)의 고향입니다.

또한 중무는 우수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무현의 토지면적은 917km²이며, 총 인구는 46만 명으로 허난성의 대외개방 중점지역이자 중국중원경제구역 조성의 핵심지역입니다.

중무의 교통은 철로, 고속도로, 항공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두 시간 내에 주변에 위치한 성(省)의 주요도시에 모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중무에는 다섯 개의 고속도로 IC가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는 정저우(鄭州)와 카이펑(開封)을 연결하는 경전철이 완공되어 보다 편리한 교통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중무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원경제구역”과 “정저우항공경제종합실험구역”이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으로 승격되면서 중무지역의 각 종 이점과 자원이 모아지는 집결지가 되었습니다. 경제종합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2013년 중무지역 총 생산액이 240억 위안을 돌파하였으며, 허난성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방공공재정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중무현은 이러한 고속경제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천억 위안 가치의 자동차산업 및 천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 할 수 있는 문화관광산업과 도시형 현대농업을 3대 주도산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주도산업으로 다섯 개의 산업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무 친환경 문화산업지구, 중무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중무관도(官渡)공업지구, 정저우현대농업시범지구, 옌밍호(雁鳴湖)생태문명시범지구가 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무역교류 촉진 및 경제발전의 발걸음을 재촉하기 위해, 현재 한국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래는 중무현의 산업구조 및 한국의 관련기업 유치에 위한 상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중무 창의문화 관광 산업: 개발계획 면적이 36km²인 이곳은 문화창조레저관광 및 첨단 비즈니스 사무와 기업본사, 고품격 생활 주거지 중심의 서비스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문화산업지구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10여 개의 상장회사와 20여 개 대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홍콩의 BINGO GROUP, 봉황TV(Phoenix Satellite Television), 선전(深圳) Eternal Asia, 베이징의 EE city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중국 500대 우량기업인 HUAQIANG GROUP이 투자 조성한 5A급 문화과학기술 테마공원인 FANTAWILD는 연간 관광객이 500만 명에 달합니다. 14억 위안을 투자한 “제2회 녹화박람회” 실외전시구역은 약 1.95km²에 달하며 허난성 최고의 “산소정원”입니다.

옌밍호생태문명시범지구는 약 45km² 규모의 삼림지대와 약 3.33km² 수역면적을 보유하고, 70여종 희귀 조류 등의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범위를 32km²로 계획하고 있으며 관광 및 친환경레저 등 산업을 중점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L'SEA, GREENTOWN, TIMING 등 8개의 우량기업들이 들어와 있으며, 징포(靜泊)산장, 국가농업공원 등 관광지구는 이미 영업 중에 있고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클럽

(St. Andrews Golf Club)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의 최신문화, 레저관광, 첨단 비즈니스 등 관련 기업의 입주를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중무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 계획면적71km², 자동차 조립 및 부품생산제조, A/S서비스, 자동차문화전시 등 관련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중국 최대의 자동차 및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완제품 차량수입이 가능한 내륙지역의 유일한 철로포트(Port)를 이용하여 국제 첨단의 자동차박람회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무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는 자동차생산제조 및 자동차 A/S서비스 구역으로 나누어 조성 할 예정이며, 그 중 자동차생산제조 구역 계획면적은 21km²이며, 주로 자동차 조립과 부품생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A/S서비스 구역의 계획면적은 50km²로, 자동차판매, 현대식 물류창고, 각 종 자동차상품 도매, 부품 판매 및 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닛산, HAIMA, HONGYU, BIKE 등 자동차 조립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50여 개의 부품생산업체와 기업R&D센터 두 곳, 국가 하이테크 기업 다섯 곳, 허난성 포스트닥(博士后) 프로젝트 센터 한 곳도 위치해 있습니다. 2013년 이 곳에서 생산된 완제품 자동차는 15만 대로 총생산액이 34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2014년 예상 차량 생산량은 18만대이며, 총 생산액 460억 위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무현은 자동차 제조 및 A/S서비스 산업 발전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선진 자동차 조립 및 부품기업의 입주를 환영합니다.

중무스마트장비 및 IT산업 : 계획면적은 14km²로, 스마트장비 및 전자정보산업을 중점 육성시킬 예정입니다.

중무관도공업단지는 허난성 정저우시의 중점공업단지 중 하나로 바이오과학기술, 스마트장비 및 IT분야가 주력산업입니다. 현재, OMPA ROBOT, Huaying Packaging 등 기업이 이미 투자생산을 시작하였으며, FUREN제약, 김박사종묘, LCN전자 등은 프로젝트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등 산업클러스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무현의 IT산업은 현재의 발전 정도와 유리한 점을 토대로 하여, 중무관도공업단지를 매개체로 한국의 선진 IT관련제조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중무현대농업 : 계획면적은 512km², 도시형 현대농업을 집중육성 할 계획입니다. 중무현대농업시범구는 야채, 화훼, 어업, 임업 및 과수, 목축업을 5대 산업으로 북부지역에는 규모 112km²의 관광농업시범구를 조성하고, 남부지역에는 규모 400km²

의 현대생태농업시범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국가지정 현대농업시범구로 비준되었습니다.

현재, 북부지역 관광농업시범구에는 이미 15개의 기업이 24억 위안의 투자를 마친 상태며, 2014년 4월 17일에는 “제1회 정저우 중무 국가농업공원 카니발”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남부지역의 생태농업시범구에는 총8.6억 위안이 투자되어 딸기생산기지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90억 위안이 투자된 WANBANG 국제 농산품 물류센터의 일일 교역량은 4만 여 톤에 달하며, 연간 교역액은 350억 위안에 달합니다.

중무현은 신식농업 기술 및 규모를 토대로, 한국의 고효율 농업과 관광농업산업 관련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한 양국의 서로 이웃해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서로간의 왕래도 많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IT, 문화관광 등 산업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득 찬 열정과 최선의 서비스로 한국기업의 입주를 환영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와 성공을 위해 중무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양국 국민 간의 우정처럼 숨김없이 투명한 관계를 말하는 한국의 저명한 시인 허균의 시구를 인용해 우리의 소중한 우정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매상조 빙호영한월(肝膽每相照 氷壺映寒月: 간과 쓸개를 꺼내어 서로를 비추니, 항아리의 얼음 한 조각을 차디찬 달이 비추는 듯하다.)’

감사합니다.



효고의 국제환경협력과 첨단환경기술

2014년 10월 22일

효고현 부지사

카나자와 카즈오(金澤和夫)

Hyogo Prefectural Government



목차



1. 동북아시아에서 효고의 국제환경협력
~몽골 삼림 재생 프로젝트~
2. 민관 제휴에 따른 국제환경협력
~고베시와 현지기업에 의한 물·인프라해외전개~
3. 앞서가는 효고의 환경기술
~신에너지「수소연료」~

Hyogo Prefectural Government

~몽골 삼림 재생 프로젝트~

- 1996, 97년 몽골에 대규모의 삼림 화재가 발생하여 몽골 자연환경부로부터 효고현에 지원·협력 요청이 옴
- 효고현은 공익재단법인인 '효고환경창조협회'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지원을 시작
-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는 약 1억 8,800만엔(약177만 달러)

《사업비(실적)》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금액 (달러)	66,000	75,000	88,000	86,000	181,000	143,000	145,000	189,000	179,000	164,000	164,000	169,000	61,000	47,000	17,000	1,774,000

(※1 달러=106엔으로 환산)

- 2년간의 조사를 걸쳐 2001년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 지도를 시작하였고, 2003년부터 나무심기(식림)사업 지원에 착수
- 지원사업 개시 후, 약 11년간 지원 면적은 총 1,855ha

《각 아이막별 지원 면적》

지역 명	면적
셀렝그 아이막	520ha
투브 아이막	200ha
볼강 아이막	1,105ha
다르항오울 아이막	30ha
합계	1,855ha

지원 현장

2003년에 나무를 심은 곳

1. 동북아시아에서 효고의 국제환경협력

- 2008년 8월 울랑바타르시에 삼림재생센터를 개설함
- NGO 몽골 삼림포럼이 운영되고, 기술자 등의 연수 및 훈련의 거점이자 연구자의 연구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함
- 2008년 효고현 지사가 몽골정부로부터 「자연환경 공헌자 칭호」를 수여 받음



삼림재생센터와 그 내부(연구실, 사무실)

센터에서 실시한 연수

2. 민관 제휴에 따른 국제환경협력

~고베시와 현지기업에 따른 물·인프라 해외전개~

- 고베시가 축적해온 물 순환 시스템·도시정비 관련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현지기업과 같이 민관제휴에 따른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전개를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국제환경협력을 목표로 함
- 2010년에 기본방침을 책정, 지금까지 앞선 환경기술을 가진 현지기업 4곳과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활동하는 중
《민관 제휴 계획안》



2. 민간 제휴에 따른 국제환경협력

《사례: 베트남·롱안성의 노력》

- 고베시와 (주)신코환경솔루션이 제휴하여 베트남 롱안성의 공업단지에 용수공급사업 시설정비 등에 참가할 계획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해외투자유자를 활용함으로써 2013년1월30일에 JICA와 베트남 측이 대출계약에 조인함

[사업내용]

① 시설정비

- 저수지 (13ha)
- 정수장 (능력 4.8만m³/1일)
- 송수관 (약12km)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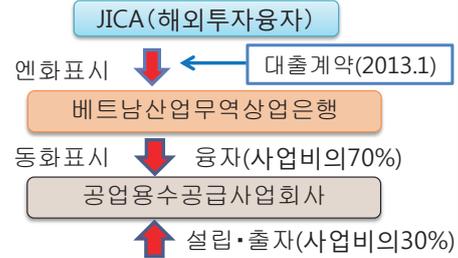
② 시설 관리 운영

- ③ 용수 공급처
- 푸안탄(Phu An Thanh) 공업단지
- 투안다오(Thuan Dao2) 공업단지2기
- 롱안성 급수 공사 등

[사업실시방법]

- 시설정비·관리운영은 신코환경솔루션이 주체
- 고베시는 외곽단체에서 기술·노하우를 제공

《자금조달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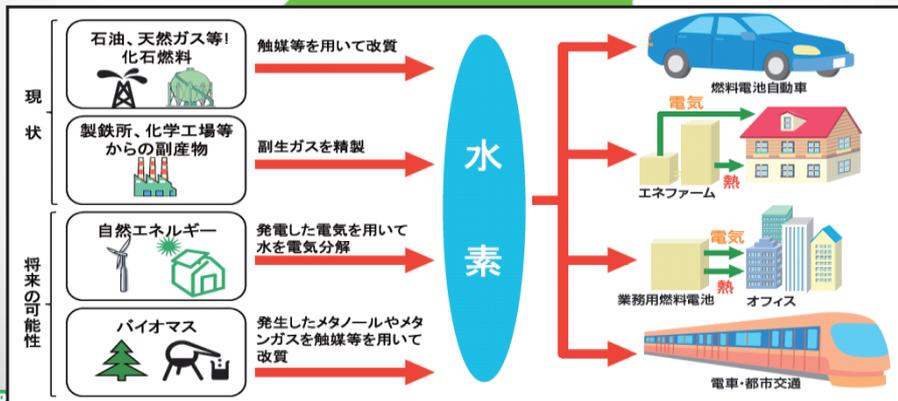
- 일본(민간): 신코환경솔루션, 신코상사
- 일본(정부): 고베주거마을건설공사, 고베시수도서비스공사
- 베트남: 푸안탄 공업단지, 드영탐 공업단지, 롱안성 급수공사

3. 앞서가는 효고의 환경기술

(1) 최고의 청정 에너지「수소」

- 「지구 온난화 대책」- 연소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음
- 「에너지 안전보장」- 다양한 자원으로 제조할 수 있고, 위험 분산 가능
- 다양한 용도- 연료전지(연료전지 자동차(FCV)), 발전용 연료 등

※효고현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FCV수 2.5만대를 목표로 비전 책정



(2) 효고에 집적된 수소 관련 기술

· 신에너지「수소」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

- 비용 절감
- 저장 및 수송 등의 기술적 어려움
- 연소 시 온도·속도의 제어
- 수소 스테이션 등의 인프라 정비 등



신코제강의 고압수소압축기

· 효고현에는 독자적인 환경기술로 이러한 과제 해결에 돌입한 기업들이 다수 존재

- 예) 신코제강(神戸製鋼) - 고압수소압축기 등의 개발
- 이시카와 - 축압기 등의 제조·유지보수
- 효고현립대학 - 차세대 수소축매에 대한 연구개발

(3) 카와사키(川崎)중공업「CO₂프리수소 컨셉트」와 첨단기술

- 호주 등에서 제조된 수소를 일본으로 운반하여, 발전·자동차 등에 활용
- 수소 제조 시 발생한 CO₂는 현지에서 지하저장
- 카와사키 중공업의 최첨단환경기술이 있었기에 실현 가능한 구상

예) 수소병용 가스 터빈「L30A」
- 253°C의 액체수소를 운반하는 전용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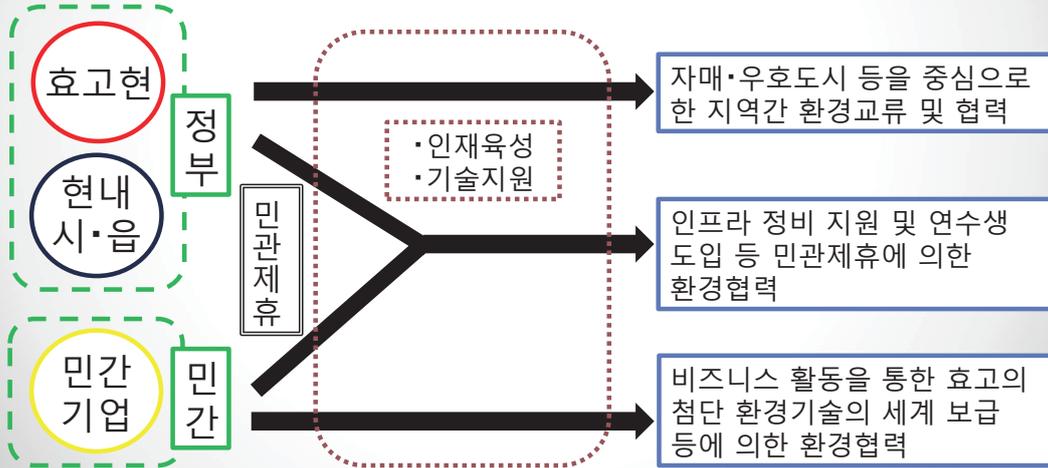


가스 터빈「L30A」



액화수소운반선

- 효고현에서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첨단환경기술이 집적
- 향후에도 자치단체, 민간기업 그리고 민관 제휴 등 다양한 틀에서 「ALL효고현」으로서 국제환경협력을 실시



감사합니다.



효고현 마스코트
「하바탄(はばタン)」

NEAR와 관련된 시마네현의 시도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차장 진자이 히데히로(神在英寛)

【NEAR의 발족 및 활동과 관련된 시마네현과의 관계】

NEAR의 발족 및 활동과 관련된 시마네현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1993년 10월, 지금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의 전신인 '제1회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회의 93'을 시마네현 마쓰에(松江)시에서 개최한 것에서부터 NEAR와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당시 각 지역자치단체는 자매교류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자치단체간의 교류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지역간의 교류가 늘어나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의견 교환함으로써 타 지역의 교류사례 및 과제를 공유할 수 있고, 이로써 상호이해와 상호협력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당시 시마네현 지사가 제창한 것입니다. 양자간의(bilateral) 교류를 다자간의(multilateral) 교류로 발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 이후 회의는 매년 개최되었고, 1996년 9월 한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제4회 회의에서 현재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설립이 결정되었고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헌장'이 채택되었습니다.

1997년 9월에는 시마네현에서 3년간 준비해온 '동북아시아 교류의 배' 라는 교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개국 13개 자치단체로 한국, 중국, 러시아에서 각각 30명씩, 일본에서 180명, 스태프와 통역을 포함하면 총 360여명이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돗토리현 사카미나토(境港)시에서 출발하여 한국 경상북도 포항시, 중국 대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회항하는 선상에서 의견교환 및 교류사업, 기착지 문화체험 등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종착지는 일본 니이가타(新潟)항으로 NEAR사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청소년교류사업이었습니다.

그 이후 2005년 9월에 경상북도의 결단으로 한국 포항시에 상설사무국을 개소하였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시마네현은 첫 일본담당관으로 직원 1명을 NEAR사무국으로 파견하였고, 그 이후

토야마(富山)현, 효고(兵庫)현에서 파견을 지속하였고, 올해 4월에는 시마네현 직원을 두 번째로 파견했습니다.

이상, 시마네현이 NEAR 발족과 연관되어 온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시마네현은 금일 앞서 설명한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자치단체이며, 미래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교류를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역사, 문화, 정치, 교육, 사고방식, 감정 등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국가범위와는 다른 시민들간의 대중적인 교류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고를 바탕으로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향후 시마네현의 역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NEAR가 발족한 1996년에 비해 동북아시아지역의 국제정세도 크게 바뀌었고, 각국의 국내여론도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마네현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공생하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각국의 미래를 짚어지는 젊은이들간의 공동작업 및 의견교환을 통해서 진지하게 상대와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근접한 지역자치단체인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직접 얼굴을 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들에게 우리들의 대화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NEAR의 존재의의는 매우 크며, 시마네현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사업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랜 세월 사무국 운영을 책임지고 맡아주신 경상북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참가하신 모든 자치단체 여러분들의 발전을 기원하며 사례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르항가이아이막의 개발정책 및 방향

아르항가이아이막 지사 바트에르덴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 개최하는 이번 총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르항가이아이막을 대표하여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발표에 앞서 아르항가이아이막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르항가이아이막은 몽골의 중심부 해발고도 1,200~3,600미터의 높이에 위치하고 그 면적은 55,200km² 에 이릅니다. 총 인구수는 92,500명이며 행정구역으로는 19개 сум, 99개 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아이막 중심도시는 체체를렉시이며 울랑바타르 시에서 49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개발정책과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르항가이아이막의 주요 경제 분야는 농·목축업입니다. 그 중에서 목축업이 핵심분야입니다. 2013년말 기준 가축의 총수는 3,772,300마리로 이 중에서 양은 1,944,000마리, 염소는 1,131,700마리, 소는 421,710마리, 말은 268,110마리, 낙타는 1,100마리입니다.

농업분야에서 주요재배 작물은 곡물, 감자를 비롯한 채소와, 사료입니다.

앞으로 농·목축업의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축의 품종개량과 가공공장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업농장 확장, 식용 식물 재배, 가공생산 개발에 대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입상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적 성분이 없는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구즈베리, 블루베리, 비타민나무 열매 등 야생 열매로 만든 각종 음료와 술 및 와인을 시장에 공급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둘째, 저는 아르항가이 지사를 역임하면서 녹색성장의 모델이 될 아이막을 건설

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자연보호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녹지면적을 늘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조사와 보호, 사막화 방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문화 유적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녹색관광' 개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국내외의 관광관련업체 및 기관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 아이들은 뛰어난 정치가와 학자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인재들을 계속하여 배출하기 위해 건강하고 잘 교육된 차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지역개발정책의 필수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건 및 교육분야를 선진국과 수준에 미치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보건, 농·목축업, 공학 분야에 필요한 인재들에 대한 해외연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정책에 대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또 한가지 없어서는 안될 요소가 국제교류의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과 협력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볼강아이막 소개

지사 에르덴바트

존경하는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강아이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볼강아이막은 몽골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그 면적은 55,200km² 에 이릅니다. 면적은 몽골 전체 영토의 3.1%를 차지하며 산림지대에 속합니다.

토지의 70.0%가 농·목축업용으로 사용되고 그 중에서 농지가 2.4%, 건초수확용지는 2.3%, 방목지는 58.5%, 하천은 0.5%, 특별용도 및 자원지는 2%를 각각 차지합니다.

해발 1,210m 고도에 위치한 중심도시인 볼강시는 수도 울랑바타르시에서 318km 떨어진 지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전체 인구수는 58,651명으로 여성은 49.6%, 남성은 50.4%를 차지합니다.

전체 인구의 96.4%는 할흐족, 1.4%는 보랴드족, 1.2%는 바야드족, 나머지는 다르하드, 두르부드, 우울드, 오리양하이, 자흐칭, 호트고이드 등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볼강아이막은 농업생산량으로는 국내에서 3위를, 목축업 규모로는 5위를, 인구성장률로는 5위를 각각 차지하며 국내총생산 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농업중심지이며 특히 작물 재배와 전국에서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마유주로 유명합니다.

또한 볼강아이막은 몽골 최초의 우주비행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국민배우 호칭수여자, 노동영웅 호칭수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43명에 이르는 개척자를 배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볼강아이막은 회원단체들과 협력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단체 여러분!

슬라이드 2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성스러운 호수, 바이칼호 부근에 위치한 부랴티야 공화국을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날의 부랴티야는 시베리아 연방지구 내의 러시아 지역발전을 위해 현대적이며 역동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3

현재 부랴티야는 러시아 교통시스템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부랴티야는 러시아 철도노선 '시베리아횡단열차'와 '바이칼-아무르열차'가 이 교차되는 곳이며 3개의 고속도로가 놓여 있는 등 러시아, 몽골, 중국과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간의 교통과 운송의 가교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울란우데는 부랴티야 공화국의 주도로 동남아시아와 러시아의 유럽지역 항공편이 교차하는 곳으로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지역은 시베리아 연방지구에서 연간 330일 동안 공항 활주로에 햇빛이 환히 비치는 최적의 기상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선 비행시간은 부랴티야 북경간 2시간, 서울 2시간 30분, 도쿄 3시간 30분, 블라디보스토크 3시간 50분이 각각 소요됩니다.

슬라이드 4

부랴티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랴티야의 진주' 바이칼호는 세계에서 가장 깊고,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며 전세계 담수량의 20%를 차지합니다.

바이칼호와 바이칼 주변의 자연경관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풍부한 '바이칼의 세계'는 생태관광, 레저관광 및 의료관광 등 다방면의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5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부랴티야의 주민들은 서로 다른 민족을 포용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랴티야에는 100여 개 이상의 민족이 평화롭고 조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토착민은 부랴트인, 에벤키인, 소요트인 등입니다.

또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부랴티야만의 독특한 점은 부랴트

문화와 (그리스도교) 구교도 후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고 러시아 정교, 불교, 샤머니즘과 회교도 등 여러 다른 종교가 융합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랴티야에서 가장 특이한 민족 중의 하나는 자바이칼의 구교도 민족들로,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6

부랴티야 공화국은 러시아의 '천연의 공간'이라 할 정도로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에 포함된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산, 텅스텐, 폴리메탈, 형석, 석탄, 석영, 구리, 바나듐, 칼륨, 알루미늄 등 700여 개 이상의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랴티야의 지하자원 매장량은 러시아 전체 아연 매장량의 48%, 납 24%, 몰리브덴 32%, 텅스텐 20%, 형석 16%, 온석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7

부랴티야는 광물자원채굴 및 가공, 첨단농업, 운송 및 물류, 목재 가공시설, 관광 등의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2020년까지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8

현재 우선순위에 따라 몇 개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 우라늄, 텅스텐, 금 매장지의 채굴을 위한 기업건설
- 석탄과 갈탄 산지 채굴 시 생산능력 증가를 위한 프로젝트 실현

슬라이드 9

- 돼지농장에서 연간 1만 2천 톤의 생고기 생산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시작
- 현대화된 장비로 육류가공식품, 유제품, 제빵·제과 제품 등 생산
- 관광레저 형태의 특별경제구역 '바이칼 항구'조성을 위한 활발한 인프라

구축

교통 및 물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 4곳에 투자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10

부랴티야는 관광지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중국, 독일, 몽골, 미국, 한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매년 관광객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부랴티야를 찾은 관광객의 수는 3배가 증가하였고, 2020년까지 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1

'차마고도', 'East ring', '시베리아 특급횡단열차', '바이칼-홉스굴' 등 러시아, 몽골, 중국의 역사, 문화유산 기행을 계획하는 국제관광노선은 모두 부랴티야를 통과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2

부랴티야는 관광레저활동 형태의 특별경제구역개발 사업인 '바이칼 항구' 프로젝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정부 프로젝트이기도 한 '바이칼 항구' 프로젝트는 5개 지구에 총 면적이 3천 헥타르 이상이며, 해안선 길이는 94km이고, 총 20억 달러의 투자비용이 예상됩니다. 현재 이미 '투르카'(Turka)지구와 '페스키'(Peski)지구의 첫 단계 공사 단계인 공학적 인프라구축사업을 마쳤습니다. 이 첫 단계 사업에 1억 달러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민간 투자자에게 매력적이며, 러시아 국내관광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러시아 동부에 위치한 새롭고 편리한 세계관광센터의 건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관광센터에는 관광객들에게 티베트 의술, 온천치료 등 동양의 전통적인 치료방법이 제공됩니다.

슬라이드 13

부랴티야는 관광 클러스터 개발에 9개의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하였고, 그 중 4곳은 '러시아 국내 및 해외 관광객 개발' 러시아 연방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부랴티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치료용 냉·온천, 신나는 사냥과 낚시 및 래프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랴티야는 화학적, 물리적 요소를 갖춘 질 좋은 광천수가 매우 풍부합니다. 지역의 유명한 300 여 개 이상의 냉·온천 중에서 절반은 온천으로 연중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들 300 여 개의 냉·온천의 90%는 소유주가 없는 곳으로 투자자들의 수익성 웰빙 리조트 건설이 가능합니다.

부랴티야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과 혜택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4

우리는 투자자들을 위한 '그린통로'를 만들 것입니다. 투자사업은 '부랴티야

공화국 지역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랴티야 공화국 지역기금은 투자자에게 필요한 토지취득 등의 인프라구축, 투자의 시작부터 사업이 현실화 될 때까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사업 등 모든 허가 및 승인의 행정업무를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사업은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슬라이드 15

부랴티야는 혁신적이며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랴티야는 투자의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어 유리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랴티야는 여러분들의 사업 발전과 번영을 위한 발판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지역은 상호이익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개발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랴티야는 대화의 장을 열고, 동반자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부랴티야는 협력파트너인 사업가들과 전세계에서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기고 싶은 관광객 모두를 환영합니다.

'시베리아의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부랴트의 땅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슬라이드 16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하공화국 체육 분과위원회 소개

존경하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 사무총장님!

존경하는 전라남도지사님!

존경하는 NEAR 총회에 참가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

러시아 사하 공화국 지사를 대신하여 여러분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NEAR라는 조직 안에서 인문과 문화 영역부터 경제와 환경협력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고 폭넓은 문제에 관해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스포츠 협력'이라는 중요한 분야도 남아 있습니다.

스포츠는 전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민족과 국가의 범위를 넘어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나라의 스포츠선수들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우승 대표팀이 속한 국가는 자부심을 드높이기도 합니다.

사하 공화국의 중요한 사회 스포츠 관련사업 중에 국제스포츠대회인 '아시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첫 근대 올림픽 대회 100주년 기념에 맞추어 1996년에 '아시아의 아이들' 1회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아시아와 러시아 지역의 아이들간의 우정을 돈독하게 하고 올림픽 대표팀의 예비훈련무대이자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의 등용문이 되며, 장애아동의 스포츠를 개발, 진흥 및 체계화하는 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우정에서 지구의 평화에 이르기까지!'란 슬로건을 내걸고 스포츠 대회개최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들의 예술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근대올림픽의 창시자 피에르 드 쿠베르탱의 의도에 완벽히 부합되는 것입니다.

1996년 제1회 국제스포츠대회 '아시아의 아이들'에서는 아쿠츠크시에서 아시아 7개국과 러시아 4개 지역단체 250여명의 어린 스포츠선수들이 8개 종목에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2000년 제2회 에서는 16개 종목에서 러시아 23개 지역단체와 해외 13곳에서 1178명의 어린 선수들이 참가하여 제 1회 때보다 참가자수가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 제 3회 대회에서는 러시아 27개 지역단체, 해외14개 단체에서 1500명 이상의 선수가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2004년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처음으로 이 대회를 후원하였습니다.

2008년 제 4회 국제스포츠대회 '아시아의 아이들'은 사하 공화국내의 대도시 3곳 (야쿠츠크시, 미르니이시, 네룬그리시)에서 열려 러시아 27개 지역단체, 해외16개 단체에서 2000명 이상의 선수가 18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제4회 대회까지 아시아 20개국 이상과 러시아 지역단체에서 참가한 선수만 5000여명을 훌쩍 넘습니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명령 № 359-пп 에 따라, 2012년 7월 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5회 '아시아의 아이들'이 개최되는 기간 중이었던 2012년 7월4일부터 6일까지 사하 공화국에서 '러시아 - 스포츠 강국'이란 주제로 국제스포츠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제 5회 대회는 UNESCO, IOC,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와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제5회 대회는 2개의 장애인경기를 포함해 20개의 경기종목으로 치러졌는데 러시아 여러 지역들과 해외26개국에서 2042명의 선수, 코치, 고위인사, 스포츠 지도자 등이 참가하여 총 876개의 메달을 놓고 경기를 벌였습니다. 그 동안 이 대회에 러시아 27개 지역단체, 해외30개 단체에서 7000명 이상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아시아의 아이들'대회는 2010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청소년 올림픽대회의 모델이 되었고 전 IOC 위원장 자크 로게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각국의 많은 어린 운동선수들을 위한 '아시아의 아이들'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포츠 대회 중의 하나이자 올림픽대회 같은 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됩니다. 이 대회가 진행된 지난 17년 동안 이미 많은 선수들이 '아시아의 아이들'이라는 등용문을 통해 올림픽 선수로 진출했습니다.

제6회 '아시아의 아이들'대회는 사하공화국 지사 명령 № 1552에 따라 2016년 사하 공화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사하공화국올림픽위원회가 창설한 국제대회위원회인 '아시아의 아이들'의 본부를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장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위원인 셰이크 아흐마드 알 파하드 알 사바의 발의로 야쿠츠크시에 설립하기로 2012년 11월 결정했습니다.

2013년 8월에는 IOC로부터 제 6회 대회의 후원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사하 공화국의 '아시아의 아이들' 국제대회는 야쿠트 민족의 전통 스포츠를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야쿠트 민족의 전통 스포츠는 최북단 극한의 기후조건에서 생활하는 동안 정신적, 신체적 자질양성을 위해 개발된 민족 고유의 문화와 복합된 형태의 스포츠입니다.

사하 공화국은 러시아 전통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하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하 공화국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전통스포츠의 대중화와 더불어 이를 높은 수준의 대회종목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에 사하는 러시아의 전설적인 국민영웅인 '바실리 만차리'이름을 딴 러시아 유일의 '바실리 만차리 전통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전문 스포츠센터에서 사하 전통 스포츠인 '합사가이', '야쿠트 넓이뛰기', '마스-레슬링', '북쪽 복합운동경기', '전통 테이블 경기' 등의 경기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하 공화국 거의 모든 지역의 스포츠센터에서 전통스포츠 전문코치들이 일하고 있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의 코치들은 전통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하 공화국의 전통 스포츠 발전수준과 인기는 현재 사하 공화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전통 스포츠를 홍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현실화되어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스포츠 및 과학분야 기관들의 지원으로 전통 스포츠를 올림픽 수준으로 발전 시켰습니다. 저희는 스포츠의 경쟁력 향상과 국제 스포츠 활동의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존경하는 NEAR회원단체 대표자 여러분께 '스포츠가 바로 너의 평화다!'라는 구호를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하 공화국에서는 2015년 여름에 제1회 체육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의제 및 보고사항

신규 회원단체 가입신청(사무국)

연합헌장 개정

2016년 총회 유치 신청

연합 신규회원 가입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I. 제안이유

○연합 헌장 제 4 조(회원의 범위) 및 제 8 조제 3 호(회원의 입회 및 제명의결)과 제 9 조제 2 호(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에 의거하여

○연합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신규회원 가입 희망단체” 승인(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II. 추진경과

○2014 년 10 월 현재 6 개국 71 개 회원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올해 2 개국 2 개 단체가 동북아시아자치단체 연합 신규 가입을 적극 희망 신청하였습니다.

○연합 가입 신청 자치단체

·중 국(1) : 지린성

·러시아(1) : 하카시야 공화국

III. 제안사항

○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규회원단체의 주요현황을 참고하시어 가입 신청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헌장 조문 개정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1. 제안이유

- 연합헌장 제10조 제1항은 실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어 이 규정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개정이 필요
- 지난 9차 총회에서 '사무국의 대한민국 경상북도 장기존속'이 결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의 개정이 필요
- 위와 같은 이유로 9차 실무위원회(2013. 9)에서 아래의 내용을 심의하고 제10차 총회에 의결하기로 결정함

2. 제안사항

현 행	개 정
제2절 실무위원회 제10조(구성 및 운영) 1. 실무위원회는 각 회원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국(청)장급으로 구성하며 <u>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한다.</u>	제2절 실무위원회 제10조(구성 및 운영) 1. 실무위원회는 각 회원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국(청)장급으로 구성하며 <u>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총회가 개최 되는 해의 전년도에 회의를 소집한다.</u>

○실무위원회의 개최를 '매년 1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에서 '총회가 개최되는 해의 전년도에 회의를 소집'으로 변경

○연합헌장 제12조의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규정에 관하여 지난 2012년 9차 총회에서 '사무국의 경상북도 장기 존속'이 결정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의 개정

현 행	개 정
<p>제3절 사무국</p> <p>제12조(구성 및 운영) 사무국은 연합"의 상설기구로서 각 국(회원 자치단체)은 필요에 따라 연락 기구를 둘 수 있다. <u>사무국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u></p>	<p>제3절 사무국</p> <p>제12조(구성 및 운영) 사무국은 "연합"의 상설기구로서 각국(회원 자치 단체)은 필요에 따라 연락 기구를 둘 수 있다. <u>사무국은 경상북도에 장기존속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u></p>

11차 NEAR 총회 유치 신청

11차 NEAR 총회 유치 신청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존경하는 회원단체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의 저명한 여러 회원단체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르쿠츠크주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책임자이자, 전 회원단체의 상호협력과 우호관계를 위해 애쓰시는 김재효 NEAR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르쿠츠크주는 NEAR라는 통로를 통해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펼치고 국제 협력증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NEAR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저희 이르쿠츠크주는 국제협력을 위해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 예로 국제기구의 활동 중에 단연 NEAR의 활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르쿠츠크주는 연합의 창설 멤버이자 변경협력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단체로서 2012년 제2회 NEAR 변경협력 분과위원회를 이르쿠츠크시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 다른 국제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에서의 활동 또한 우리 주에 있어서 적잖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르쿠츠크시는 '상하이협력기구' 산하 '국제바이칼경제포럼' 기업협의회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및 CIS 국가간의 무역을 추진하는 일본기업협회 ROTOBO와 정기적으로 지역 투자환경 및 사업수행조건 등의 정보교환과 국제행사 일정표에 따라 공동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르쿠츠크주는 러시아 공민재판부와 공동으로 아시아 사회경제위원회 및 유관기관들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러시아 중앙정부의 금

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에서 이르쿠츠크주는 2015년까지 의장단체로 활동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이르쿠츠크주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의 협력관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르쿠츠크주 정부와 KOTRA는 적극적인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이르쿠츠크주와 한국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이르쿠츠크주가 국제기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르쿠츠크주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러시아 유럽지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까지 무역로의 교차점, 즉 러시아와 아시아지역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경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몽골은 오랫동안 이르쿠츠크주 대외경제무역의 주요 파트너가 되어왔습니다.

이르쿠츠크주의 대외무역은 상호이익의 원리에 기초하여 동북아의 국가들로부터 60%까지 알루미늄, 설비, 기술, 교통, 식품, 소비재 등을 수입하고, 반대로 전통용품, 석유 및 석유제품, 금속, 목재, 펄프, 화학제품을 수출하는데 동북아 지역은 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이르쿠츠크주는 경제무역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한 '시베리아의 힘', '이르쿠츠크 에어 시티(IrkutskAircity)', '바이칼 스마트 시티(BaikalSmartcity)', 목공단지 건설, 석유·가스 산지 개발 등과 같은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르쿠츠크주는 국내 최대의 산림을 보유하고 금, 석유, 가스, 석탄 등의 매장량이 집중된 곳으로, 연료-에너지, 광업, 임업, 석유화학단지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기계제작에 큰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산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르쿠츠크주는 강력한 경제산업지구를 형성하여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최대의 과학교육 잠재력 보유를 희망합니다.

양가라강 연안의 매력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담수로 유명한 청정한 바이칼 호수와 근접해 있고, 멋진 해안 경관, 독특한 동, 식물군, 급류가 흐르는 강과 폭포가 어우러진 광대한 산악지대, 넓은 호수, 그림 같은 계곡 등 다양한 자연 풍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 기본 인프라, 풍부한 천연자원 덕분에 저희 이르쿠츠크주는 관광레저분야의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07년 러시아 정부는 관광레저 형태의 특별경제구역인 '바이칼 게이트' 조성을 비준하였습니다.

저희 이르쿠츠크주는 NEAR의 헌장에 의거하여 동북아 지역들간의 경제, 문화, 관광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며, 저희 이르쿠츠크주로 NEAR의 회원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NEAR 회원 단체 여러분! 이르쿠츠크주가 제11차 NEAR 총회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사항 (NEAR 사무국)

NEAR회비제 도입 제안
분과위원회 효율적 운영방안 제안
NEAR 사무총장배 노래자랑대회

NEAR 회비제 도입에 관한 제안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I. 도입방향

“잠정적으로 회비는 부담하지 아니한다.”라는 헌장 규정에 따라 연합이 운영되다가 2008 년 제 7 차 총회에서 연합행사 개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회원자치단체연합의 책임감 있는 연합활동 참여를 위해 회비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회비 징수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모든 회원단체들이 수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기본회비제 도입을 제안함

II. 경위

○ 2008 년 9 월 : 제 7 차 총회(중국 산둥성)에서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 주에서 회비제 도입 제안. 도입 시기에 우선을 두고 사무국에 위탁하면서 국가별 대표로 구성된 “회비제 특별위원회”구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차기 총회에 상정토록 함

○ 2009 년 5 월 : 특별위원회는 회비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도입 시기는 세계적 경제여건이 호전 시까지 유보기로 합의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상정키로 함

○ 2009 년 9 월 : 제 7 차 실무위원회(한국 경기도)에서 특별위원회의 결과를 감안, 도입시기만이라도 2010 년 총회에서 결정토록 의제 상정키로 함

○ 2010 년 10 월 : 제 8 차 총회(한국 경기도)에서 도입시기만을 결정한다는 제 7 차 실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부결함

○ 2011 년 7 월 : 제 8 차 실무위원회(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 연합위상 제고 및 회원단체의 확대와 참여도 제고를 위해 회비제 도입에 대한 사무국 차원의 제안을 함

- 회비제 도입 방법상 과도기적으로 2013 년부터(2012 년 제 9 차 총회결의 후)특정목적의 “특별회비제를 도입하여 운영한 후 연합창설 20 주년인 2016 년부터 본격적인 회비제로 전환을 제안

- 제 8 차 실무위원회(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토의 결과 : 원칙적으로 회비제 도입에 찬성하고 도입 시기에 관해서는 2016 년 NEAR 창립 20 주년을 기점으로 정하며, 과도기적으로 2013 년부터 3 년간「특별용도를 위한 특별회비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함. 특별회비의 회원단체별(국가단위) 차등화와 부과방식에 대해서는 2012 년 총회 이전까지 추가적으로 보완하기로 함

○ 2011 년 9 월~10 월 : 제 8 차 실무위원회의 합의에 따른 특별회비 부과방식(차등화)에 대한 보완으로 △사무국에서 차등비율을 기존의 10:1 에서 5:1 로 수정하고 국가별 지수 조정에 기준비율을 변동하여 △68 개 회원단체(북한 회원단체 제외)를 대상으로 특별회비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 9 차 총회에 “특별회비제 운영에 관한 의제”를 작성하여 제 9 차 총회에 상정

○ 2012 년 7 월 : 제 9 차 총회(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참석한 38 개 회원단체 중 36 개 단체가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23, 반대 6, 기권 7 로 가결조건인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회원출석 2/3(24)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됨

○ 2013 년 9 월 10 일 ~ 13 일 : 제 9 차 실무위원회(한국 전남영암군, 5 개국 26 개 회원단체 94 명 참석)에서 NEAR 사무국의 新비전 연구보고 시 '재무구조 재정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토론이 필요하므로 회원단체와 추가협의 및 검토 후 차기 총회로 상정키로' 함

Ⅲ. 회비제 운영 제안

○ 회비 부과 방식

- 전 회원에게 동일한 연회비를 부과하는 기본회비와 회원 단체별 경제지표,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으로 부과하는 특별회비로 운영

○ 도입 시기

- NEAR 창설 20 주년이 되는 2016 년부터 1 단계로 기본회비를 부과(회원 단체별 내부절차 등을 감안)

○ 회비 : 연회비 US\$2,000

○ 회비의 용도

- 연합의 발전과 회원단체의 공동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수행에 사용

* 단, 기존의 사무국 운영에 따른 경상운영비는 경상북도에서 계속 부담함

분과위원회 효율적 운영방안 제안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1. 제안이유

- 현재의 분과위원회는 산업별, 주제별로 14 개가 설치되어 각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터 회원단체(Coordinator)에 의해 운영되고 매년 혹은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코디네이터 단체에서 행사를 단독으로 개최하는데 대한 재정적 부담과 단일 주제로 행사의 내실을 기하는데 대한 부담이 있고, 행사가 많거나 동일기간 내에 중복되어 개최되는 경우에 참여율을 높일 수 없는 상황
- 분과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4 개의 위원회를 만들고 각 위원회별로 관련 있는 4~5 개의 분과위원회를 배치하여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별로 효율적으로 운영 할 필요가 있음

2. 제안 내용

- 업무협조가 가능하고 유사성이 있는 분과위원회들을 묶어서 몇 개의 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별로 논의하여 분과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동개최하는 등 운영을 협조할 수 있도록 함
- 분과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무국의 제안

- 위원회 I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한국, 경상북도), 농업분과위원회(한국, 전라남도),
해양어업분과위원회(중국, 산둥성), 광물자원개발분과위원회(러시아, 마가단주),
변경협력분과위원회(러시아, 이르쿠츠크주)

- 위원회 II

과학기술분과위원회(한국, 경기도),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한국, 충청북도),
에너지기후변화분과위원회(한국, 대구광역시), 환경분과위원회(일본, 토야마현),
방재분과위원회(일본, 효고현)

- 위원회 III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일본, 시마네현), 여성아동분과위원회(몽골,
도르노드아이막), 관광분과위원회(중국, 허난성), 체육분과위원회(러시아,
사하공화국)

○ 업무협조범위

- 2~3개 분과위원회의 공동개최

예 1) 위원회 I 한국 전라남도과 중국 산둥성의 농업 및 해양어업 분과위원회의
공동개최, 격년으로 1년은 한국 전남에서 다음 1년은 중국 산둥성에서 개최

- 한 위원회에 속한 전체 분과위원회의 공동개최

예 2) 위원회 표에 속한 회원단체들이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과 같은 주제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과학, 환경, 방재의 측면에서 각 코디네이터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행사를 운영함

○ 위와 같은 내용의 분과위원회 효율화 방안을 차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 11 차 총회에서 보고할 것을 제안

NEAR 사무총장배 노래자랑대회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1. 제안이유

○실무자 워크숍에 참여를 높이고 참가자들의 참여 및 연대의식을 고취하며 회원단체 간 협력과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자 워크숍 기간 중 워크숍 참가자를 대상으로 총장배 노래자랑대회를 개최

2. 제안 내용

- 시기와 장소는 실무자 워크숍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워크숍 참가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노래자랑대회 참가 신청을 받아 실시
- 참가곡은 전통민요, 대중가요, 가곡 등 자유선곡을 하고 참가자가 곡의 악보와 음원(MR)을 사무국에 미리 보내도록 함
- 경연결과에 대해 시상을 실시하고 수상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도 참가상을 제공
- 행사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 년 실무자 워크숍 전 공지하도록 함



가입 후 소감발표

중국 지린성
러시아 하카시아 공화국

신규회원단체 인사

손을 맞잡고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다

중국 지린성

존경하는 김재효 NEAR사무총장님 및 인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가을 날씨가 완연한 10월의 한국에서 아름다운 고장 전라남도에 모여 우정을 쌓고 협력을 도모 할 수 있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린성은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 정식 가입하여, 72번째의 회원지방정부가 되었습니다. 지린성에 있어 역사적인 시간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린성 정부를 대표하여 이번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사무국과 전라남도의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창설된 이래, 회원지역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추진에 많은 공헌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 각 회원지역들이 연합이라는 협력의 장을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신 점을 저희 지린성은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함께 노력한다면 동북아지역 협력은 더욱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보다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지린성은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 정식으로 가입을 하였기에 여러분께 간단하게 지린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린성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에 있으며, 총 면적은 18.74만 km², 인구는 2750만 명입니다. 지린성의 특징을 간략하게 숫자 “하나, 둘, 셋”으로 설명 할 수 있습니다.

“**하나된 동북아의 중심**” — 지린성은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한국, 몽골, 러시아 동시베리아로 구성된 동북아에서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UNDP에서 추진하는 두만강지구국제협력개발 사업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협력에 있어 월등한 지역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업과 식량, 두 가지의 기지(基地) — 지린성은 중국의 중요한 공업기지이자 식량생산기지입니다. 지린성의 가공제조업이 비교적 발달하여 자동차, 석유화학공업, 농산품가공업이 3대 기간산업(基幹産業)이며, 의약 및 IT분야의 산업도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지린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수수 생산지이며, 흑토(黑土)의 고장으로 불리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농업기지입니다. 다년간 지린성의 곡물 상품화 비율과 일인당 곡물 생산량은 중국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지하자원 세 종류의 우위” — 지린성의 과학기술 교육과 생태환경은, 주요 지하자원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린성의 인구에서 과학자, 엔지니어 및 대학생 등 엘리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에서도 손꼽힙니다. 또한 지린성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36곳이며, 전체 면적에서 삼림면적 차지 비율이 43.4% 입니다. 지린성에 매장된 광물자원 역시 비교적 풍부하며, 특히 오일 셰일(oil shale), 규회석(硅灰石)등 매장량은 중국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잠재력이 아주 큰 지역입니다.

최근, 중국중앙정부의 동북지역공업기지전략 및 창지투개발개방전략과 같은 강력한 정책 추진 아래, 지린성의 경제사회는 빠른 발전 속도와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린성은 빠른 속도로 도시화, 공업화가 진행 중에 있어, 시장 잠재력 또한 매우 큼니다. 지린성은 60개의 대외개방 창구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훈춘(琿春)국제협력시범구역 조성이 중점 추진 되고 있으며, 보세(保稅) 기능을 갖춘 창춘싱롱(長春興隆)종합보세구역, 국제 식료품물류센터인 중신(中新)지린식품구역, “공항경제”발전을 위한 창춘공항경제구역, 연지공항경제구역 등이 있으며, 세계 500대기업 및 중국 내 대기업의 참여와 건설을 유치했습니다. 중국정부는 창지투(창춘-지린-투먼)개발개방을 아주 중요시 하고 있으며, 창지투 지역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회원지역의 정부 및 기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지린성은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고, 동북아지역협력의 다양한 메커니즘과 플랫폼을 이용하여, 여러분과 함께 동북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시스템을 모색하고, 동북아지역 공동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05년부터 지린성은 아홉 번의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박람회는 동북아 각 국이 함께 참여하며, 전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국제종합박람회 입니다. 2012년 중국중앙정부의 비준을 거쳐 이 박람회는 “중국-

동북아박람회"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대외무역개방에서 "동북아박람회"의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주변국과의 교류협력 플랫폼 조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방문을 성공리에 마쳤는데, 중국-동북아박람회는 <한중공동성명>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어 중국정부의 동북아박람회에 대한 기대와 함께 동북아지역협력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의 동북아박람회를 거치는 동안, 세계 100여 국가와 지역에서 온 52만여 명의 비즈니스맨들이 참가했고, 무역 거래성사 금액 역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지린성은 "제10회 중국-동북아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지역 및 내빈 여러분들께 내년 동북아박람회에 정중히 초청합니다. 또한 한국의 더 많은 정부인사와 기업의 참가도 반갑게 맞이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및 각 회원지역이 지린성의 연합가입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회원단체 가입 소감

하카시야 공화국 지사 지민

내외 귀빈 여러분!

하카시야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또한 개인적으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EAR는 경제, 무역, 에너지, 광물자원에서부터 관광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교류와 협력분야는 우리 공화국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부문입니다.

하카시야는 무한한 전력, 토지자원,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교차점에 자리하여 지리적으로도 동서교류에 중요한 위치에 있고, 모든 종류의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철도와 고속도로의 훌륭한 물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모든 면에서 개발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주는 비즈니스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고, 대학생들에게 전문 직업 훈련을 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카시야 공화국의 경제는 산업 생산을 기반으로 한 '멀티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 야금, 연료 에너지 단지, 식품산업, 농업 등은 우리 공화국이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분야입니다.

오늘날 하카시야는 석탄 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5-7년 이후가 되면 지금보다 석탄 채굴량이 두 배가 늘어나 연간 생산량이 3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의 채굴 및 가공 산업은 하카시야 공화국과 핀란드 회사인 아우토테크(OUTOTEC)가 공동으로 '직접환원철(DRI)'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과 가공공장의 설립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지역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카시야 공화국은 오늘 NEAR의 신규회원이 되었고, 앞으로 NEAR의 회원지역과 새로운 무역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무역 파트너로 하카시야를 선택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대외 경제,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유익한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연합현장 및 회원단체 현황

聯合憲章

전 문

국제사회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의 대표들은 호혜·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헌장의 채택에 동의하고,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제 1 장 기구의 명칭 및 목적

제 1 조(명칭) 이 기구는「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이하 “연합”으로 표기함) 이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자치단체들이 호혜·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자치단체간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이해에 입각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총회)의 정례적 개최

- ②지역간 경제·기술 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③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의 지원 및 추진
- ④기타 본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의 범위 및 권리·의무

제 4 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회원은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국, 몽골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등 자치단체 중 “연합”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총회의 결정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 5 조(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연합”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헌장이 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조직 및 기능

제 1 절 총 회

제 6 조(구성 및 운영) 총회는 회원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격년제로 개최한다.

제 7 조(임원) 총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은 1 인으로 하며,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총회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10. 10. 28) 단, 의장 유고시 직무는 소속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대행한다.

(2) 감사는 각 국당 1 인으로 하며, 회계감사를 관장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제 1 호와 같다.

제 8 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감사의 선출
-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 의결
- (4) 회비의 결정
- (5) 연합 헌장의 개정
- (6) 기구의 해산 및 청산 결정
- (7) 차기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결정
- (8) 사무국의 설치장소 결정
- (9) 연합의 각 사업계획 결정 및 집행
-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9 조(의사결정) 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회원자치단체는 각 1 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제 8 조제 1 호 내지 제 8 호에 명시된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 9 조제 2 호 이외의 기타 조항에 관해서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실무위원회

제 10 조(구성 및 운영) ①실무위원회는 각 회원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국(청)장급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매년 1 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주임(위원장)은 의장회원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총회에서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④개별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의 지원을 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실무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개별 혹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8. 9)

제 11 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및 개별 프로젝트의 협의

(2)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3) 회원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

(4)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결정 (신설 '98. 9)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 절 사무국

제 12 조(구성 및 운영) 사무국은 “연합”의 상설기구로서 각 국(회원자치단체)은 필요에 따라 연락 기구를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총회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임원 및 직원)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사무총장은 1 인으로 하며, 사무국 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책임자를 추천하고 연합의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의 임원과 직원은 “연합”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 14 조(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예산편성 및 집행

② 사업계획서,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③ 회원자치단체간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④ 총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⑤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5 조(재정) ①사무국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 회원자치단체의 회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②회계에 관한 사항은 잠정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잠정적으로 회비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총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분담한다.

가. 경비총액(A)의 반액(B)은 회의 개최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나. 나머지 반액(C=A-B)은 회의개최 자치단체를 뺀 연합회원자치단체 수(D)를
균등하게 나눈 액(C/D)을 회의에 참가한 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다.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치단체수가 D 를 하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은
회의 개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라. 회원자치단체는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부담이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회원자치 단체간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마. 총회 시 차기 총회개최지에 입후보하는 자치단체는 개최할 총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경비의 잠정 회계를 제출해야 한다.

3. 사무국 운영경비는 사무국이 설치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기타 개별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경비는 사업을 제안한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 4 절 연합지원기관

제 16 조(설치) 동북아시아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회원 각 자치단체는 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하「연합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8. 9)

제 17 조(등록) 1. 회원자치단체가 연합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회원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연합에 등록할 수 있다. (신설 '98. 9)

2. 연합지원기관은 그 활동상황을 연합에 보고한다. (신설 '98. 9)

제 4 장 최종규정

제 18 조(효력) 이 헌장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9 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창립회원은 1996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에 참석하여 본 헌장의 기본정신에 동의한 자치단체로 한다.

제 20 조(언어) 이 헌장은 회원단체 소속국가별 언어와 영어로 작성하여 정본은 사무국의 문서보관소에 보관하고, 사본은 각 회원자치단체에 보관한다.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자치단체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1996 년 9 월 12 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부 칙

이 헌장은 1998 년 10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02 년 9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04 년 9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10 년 10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헌장 제 11 조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 1 조(설치)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에서 제안된 개별 프로젝트 혹은 과제(이하「개별 프로젝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 2 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명칭)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경제통상분과위원회
- (2) 환경분과위원회
- (3)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통합 '08. 9. 2)
- (4) 방재분과위원회
- (5) 변경협력분과위원회 ('04. 9. 5)
- (6) 과학기술분과위원회 ('06. 9. 14)
- (7) 해양·어업분과위원회 ('08. 9. 2)

- (8) 관광분과위원회 ('08. 9. 2)
- (9) 광물자원개발·조정분과위원회 ('10. 10. 28)
- (10) 에너지·기후변화분과위원회 ('10. 10. 28)
- (11) 여성·아동분과위원회 ('10. 10. 28)
- (12)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 ('11. 7. 19)
- (13) 농업분과위원회 ('11. 7. 19)

제 3 조(기능) 1. 각 분과위원회는 제안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개별 프로젝트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방법 등에 대해 검토 협의한다.

2.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참여 자치단체가 제안하는 개별 프로젝트를 담당하여 검토 협의한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4 조(구성) 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담당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자치단체 담당부·국의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운영) 1. 각 분과위원회에 호선에 의해 분과위원회의 연락, 조정, 운영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이하「코디네이트 자치단체」라고 한다)를 둔다.

2. 코디네이트 자치단체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는 공동코디네이트 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통신방식(우송, 팩시밀리 등)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각 분과위원회는 임기 내에 1 회 이상 회의 또는 관련 활동을 하여야 한다.

5. 분과위원회 운영시 회원단체의 참가는 5 개국 10 개 이상 단체의 유지를 원칙으로 노력한다.

6.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제 6 조(참가) 1. 모든 회원단체는 연합의 모든 분과위원회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제 7 조(비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트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단, 분과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교통비 및 제재비는 원칙적으로 회의참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연합사무국과의 관계)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는 분과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회의 결과를 사무국에 송부하고, 사무국은 모든 회원단체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규정에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실무위원회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 년 10 월 21 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4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2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9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연합(NEAR) 회원단체 현황

■ 회원단체 : 6 개국 71 개 단체

국 가	단체수	자 치 단 체 명
중 국	6	·헤이룽장성·허난성·후베이성·후난성 ·닝샤후이족자치구·산둥성
일 본	10	·아오모리현·야마가타현·니이가타현·토야마현·이시카와현 ·후쿠이현·교토부·효고현·돗토리현·시마네현
한 국	16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북 한	2	·함경북도·나선특급시
몽 골	22	·울란바타르시·아르항가이아이막·바양울기아이막 ·바양홍고르아이막·볼강아이막·고비알타이아이막 ·고비숨베르아이막·다르항오울아이막·도르노드아이막 ·도르노고비아이막·돈드고비아이막·자브항아이막 ·오르홍아이막·우브르항가이아이막·움느고비아이막 ·수흐바타르아이막·셀렝그아이막·투브아이막 ·웁스아이막·흙드아이막·흙스쿨아이막·헝티아이막

러시아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랴티야공화국·사하(야쿠치아)공화국·튀바공화국 ·알타이변경주·자바이칼변경주·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 ·연해변경주·하바롭스크변경주·아무르주·이르쿠츠크주 ·캄차카변경주·마가단주·사할린주·툼스크주·케메롭스키주
-----	----	---

■ 읍저버 : 2 개국 5 개 단체

국 가	단체수	자 치 단 체 명
중 국	4	·텐진시, 산시성(山西省), 산시성(陝西省), 랴오닝성
일 본	1	·야마구찌